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42호 【루계 제25916호】 주체107(2018)년 2월 11일 (일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최후승리에 대한 신심드높이 총공격 앞으로!

20만산대발파 진행, 간석지건설 적극 추진

홍건도간석지 2단계건설장에서

혁명적인 총공세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할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평안북도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이 홍건도간석지건설에서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나가고있다.

올해 정초부터 총돌격전을 벌려 지난 2월 5일 20만산대발파를 성과적으로 진행한 일군들과 간석지건설자들은 그 기세로 련속공격전을 들이대어 지난 9일에는 홍건도간석지 2단계건설을 위한 련결제방공사를 결속하는 자랑찬 로력적위훈을 창조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세번째 해인 올해에 경제전선전반에서 활성화의 돌파구를 열어제껴야 하겠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일군들은 홍건도간석지 2단계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신속있게 짜고들었다. 특히 자력갱생과 자급자족의 구호를 높이 들고 연유와 화공품, 봉건설비부속품을 제때에 보장하는데 힘을 넣었다.

현장지휘부의 일군들은 여러 지구에서 련결제방공사와 1호제방 1차물막이공사를 힘있게 벌리는 한편 접도에서 20만산대발파준비를 다그치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20만산대발파준비를 맡은 장송, 다사간석지건설분사업소의 일군들은 겨울철의 불리한 조건에서도 합리적인 작업방법을 받아들이고 대중의 정신력을 폭발시키면서 도껭굴진전투를 힘있게 벌리였다.

제대군인돌격대원들은 한몸이 그대로 화약이 되고 기폭제가 되어 공사마구를 열어나갈 비상한 각오를 안고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려 수십m의 도껭을 뚫는 집단적혁신을 창조하였다. 그리하여 접도에 전개된 간석지건설자들은 20만산대발파를 성과적으로 진행하고 홍건도간석지 2단계건설을 위한 련결제방공사를 결속할수 있는 돌파구를 열어놓았다.

현장지휘부에서는 이 성과에 기초하여 건설력량과 수단들에 대한 집중과 분산, 재배치 등 전투조직을 능동적으로 짜고들었다.

종합기업소의 일군들은 정치사업부대를 들끓는 전투장으로 옮기고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걸린 문제들을 풀어주면서 건설자들을 새로운 위훈창조에로 떠밀어주었다.

당위원회에서는 모든 선전력량과 수단들을 전투장들에 집중시키고 화선식정치사업을 활발히 벌려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였다.

혁신의 불길은 20만산대발파가 성과적으로 진행된 접도지구에서 세차게 타올랐다.

접도를 타고앉은 장송, 다사, 보산간석지건설분사업소, 다사기계화분사업소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바다가 얼어붙은 불리한 조건에서도 연유와 화공품, 후방물자를 제때에 수송하면서 총돌격전을 벌리였다.

그리하여 대발파를 진행한지 며칠만에 작은매륙도방향으로 수백m의 제방을 쌓고 홍건도간석지 2단계건설을 위한 련결제방공사를 결속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작은매륙도에서 큰매륙도방향의 련결제방공사를 맡은 석화, 화산, 로하간석지건설분사업소와 청강기계화분사업소의 건설자들도 련대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였다.

이곳 간석지건설자들은 자강력제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불굴의 공격정신으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뚫고나가면서 공사속도를 높여 큰매륙도방향의 련결제방공사를 결속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대삼곶도에서 접도방향의 1호방조제 1차물막이공사를 맡은 다사간석지건설분사업소와 신의주간석지부제분공장, 리수복청년돌격대, 다사기계화분사업소의 전투원들도 돌격전을 벌려 1 000m의 제방을 쌓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다사기계화분사업소, 청강기계화분사업소의 건설자들은 간석지건설에서 자신들이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봉건설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면서 전투장들마다에서 공사의 돌파구를 열어나가고있다.

특파기자 송창윤

가성소다생산에서 련일 혁신

2.8비날론련합기업소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력사적인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1월 가성소다생산계획을 완수한 2.8비날론련합기업소 로동계급은 뜻깊은 2월의 명절을 맞으며 가성소다생산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는데 총력을 집중하여야 합니다.》

화학공업성과 함경남도당위원회의 적극적인 지도와 방조밑에 련합기업소일군들은 지난해에 능력확장된 가성소다생산공정을 만가동시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더 많은 가성소다를 보내주기 위한 전투조직을 치밀하게 짜고들고있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신년사과업관철에 떨쳐나선 생산자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기 위한 화선식정치사업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고있다.

련합기업소참모부에서는 가성소다생산을 맡은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깐지게 하도록 하는 한편 질제고를 위한 사업총화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이동참모회의를 자주 조직하여 제기되는 기술적문제들을 제때에 풀어나가고있다.

가성소다직장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부닥치는 난관을 과감히 뚫고헤치며 생산적앙양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생산의 선행공정을 맡은 염수작업반의 로동자들은 싸우는 고지에 탄약을 보장한다는 비상한 자각을 안고 공정별에 따르는 기술적요구를 엄격히 지키면서 건장한 전투를 벌리고있다.

이들의 투쟁기세에 발맞추어 전해운전작업반과 증발농축작업반의 로동자들은 전해조판리와 설비조작을 과학적으로 하면서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분석실과 전해보수작업반의 분석공, 로동자들도 시료분석을 깐지게 하고 생산공정의 불비한 개소들을 제때에 찾아 퇴치하여 생산정상화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직장의 일군들은 후방사업이자 곧 정치사업이며 사회주의수호전이라는 관점밑에 후방사업을 일판하게 틀어쥐고 어기에 큰 꿈을 넣고있다.

공화국창건 일흔돐을 높은 로력적성과로 빛내일 한마음안고 떨쳐나선 련합기업소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가성소다생산성과는 계속 확대되고있다.

본사기자

자립경제발전의 지름길을 앞장에서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는데 총력을 집중할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김책공업종합대학의 연구집단들이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달려나가 과학연구활동을 활발히 벌려나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과학기술로 강성국가의 기초를 굳건히 다지고 과학기술의 기관차로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쳐나가려는 우리 당의 결심과 의지는 확고합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대학의 책임일군들은 공화국창건 일흔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를 더 많은 과학연구성과들로 빛내일 드높은 열의를 안고 조직정치사업을 적극 짜고들고있다.

대학에서는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전원회의가 제시한 혁명적대응전략의 요구에 맞게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는데 적극 이바지하는 수십개 대상에 400여건의 과학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높은 목표를 내세웠다.

대학책임일군들은 중요연구과제를 수행할 연구력량들을 실력이 높은 과학자들로 편성하고 매일 연구사업진척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면서 필요한 대책을 세워나가고있다.

단과대학, 학부들사이, 강좌들사이, 교원, 연구사들사이에 자기들이 맡은 과학연구과제들을 빠른 시일안에 결속하기 위한 경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대학에서는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많은 단위들의 현대화사업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완성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에 큰 힘을 넣고있다.

김책제철련합기업소에 달려나간 연구집단은 우리 식의 산소얼범용광로의 시운전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기동적으로 해결하여 지난 1월 새해 첫 출선을 성과적으로 보장한데 이어 많은 쇠물을 생산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에서 연구집단은 철야전투를 벌려 20kW발전설비착화용심령식산소분리기를 정상운영하도록 하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한편 대학의 한 연구집단은 국가통합전력관리체계의 전력관리기술장치운영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적극 기여하였고 평양치과위생용품공장에 나간 연구집단은 치약배합공정의 PLC조종장치를 원상복구하고 각종 수감부들의 동력회로결선을 끝낸데 이어 무하시험에서 성공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대동강주사기공장에서 대학의 연구집단은 주사바늘초음파세척공정을 현대화하는데 절실히 필요한 소초음파세척기, 산처리기, 고압온수발생기를 높은 수준에서 제작하였으며 주사바늘건조기조종반제작을 끝내고 검사시험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

그리고 대학의 연구집단은 어느 한 단위에 나가 긴장한 연구사업을 벌려 80hp수지고기배의 설계를 완성하였으며 다른 한 연구집단은 합리적인 버겨가스화에 의한 전력생산체계구성방법을 찾아 설계를 완성하였다.

청년두단종어사업소 미꾸라지종어장현대화사업에 참가한 대학의 연구집단은 통합자동화체계의 부분체계들을 수정완비하여 체계의 종합적인 시험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 그리고 새로 개발한 자리집수감부의 특성에 맞게 조종프로그람작성을 완료하여 자동먹이공급 및 수질관리로보트의 시운전을 보장하였으며 수질종합측정장치를 설치하고 시험에서 성공하였다.

대학의 한 연구집단은 평남탄광지구에 대한 3차원지질도를 완성하였으며 람사자료처리 및 해석프로그람을 작성하고 련동시험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밖에도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는 단천발전소 물길굴공사를 앞당겨 끝내는데 이바지할 연구사업을 비롯하여 나라의 전기문제를 해결하는데 절실히 필요한 수십건의 과제들과 무명합금철공장에 우리 나라 자원에 의한 새로운 불수강중간시험생산공정을 확립하는 등 금속공업의 주체화를 위한 연구과제수행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이뿐이 아니다. 대학의 연구집단들은 5t급화물자동차와 80hp뜨락또르생산에 필요한 구상흑연주철과 복합미량합금화기술공정을 확립하고 과급기시험대를 개발하는것을 비롯하여 기계공업부문의 10여건의 연구과제도 적극 추진해가고있으며 남덕청년탄광에 수자식탄광설계체계를 도입하고 구장지구탄광련합기업소에 총탄면봉피식채탄법을 연구도입하는것을 비롯하여 석탄공업부문에서 제기되는 여러 연구사업들도 밀고나가고있다. 그리고 상농광산에 습식동제련공정을 확립하고 있으며 단천지구광업총국에 용착에 의한 마광기대치차새생기술을 도입하고있는 등 채취공업부문을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과학연구사업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과학연구사업도 힘있게 내밀고있다.

대학의 연구집단들은 삼지연감자가루생산공장 증기보이라를 개조하고 평양향료공장현대화사업과 평양기초식품공장 리진로장공정현대화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있는것을 비롯하여 현실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전투를 활발히 벌리고있다.

본사기자 김명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고위급대표단이 청와대에서 남조선대통령을 만났다

【평양 2월 10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고위급대표단이 제23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 개막식에 참가하고 10일 청와대에서 문재인남조선대통령을 만났다.

문재인대통령은 청와대 본관 현관에서 우리 고위급대표단을 반갑게 맞이하여 인사를 나누고 김영남동지, 김여정동지와 각각 기념사진을 찍었다.

이어 청와대 본관 2층에서 김영남동지, 김여정동지는 문재인대통령과 따뜻한 담화를 하였다.

석상에서 문재인대통령은 이번 북측대표단의 방문이 남북관계개선과 조선반도정화를 위한 불씨로 되였다고 하면서 오늘의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김정은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하였다.

김영남동지는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가 성과적으로 개막된데 대하여 축하하고 문재인대통령이 큰 대사를 치르는 속에서 자리를 같이해준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였다.

석상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위임을 받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김여정동지가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문재인대통령에게 보내시는 친서를 정중히 전달하였으며 최고령도자동지의 뜻을 구두로 전하였다.

문재인대통령은 김정은위원장님께서 이번 올림픽에 북측고위급대표단이 참가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시고 친서와 구두인사까지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하고 자신의 감사의 인사를 꼭 전해드릴것을 부탁하였다.

친서전달이 끝난 다음 우리 대표단은 북남관계개선문제와 관련하여 남측과 솔직하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문재인대통령은 김정은위원장님께서 신년사에서 밝히신바와 같이 남북관계를 어떻게 하나 탕사자들끼리 풀어나가야 한다고 하면서 서로 긴밀히 협력하여 남북공동의 번영을 위해 한걸음한걸음 나갈 의지를 표명하였다.

김영남동지는 북남관계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는데서 확고한 의지를 지니고 용기와 결단을 내린다면 예상치 못한 애로와 난관도 능히 돌파해나갈수 있으며 통일의 미래를 앞당길수 있다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담화는 진지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여기에는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 최휘동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리선권동지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실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 원장이 참가하였다.

이날 문재인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우리 고위급대표단을 위하여 오찬을 마련하였다.

오찬에는 우리측 고위급대표단전원과 남측 면담참가성원들, 국가정보원, 국가안보실 주요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오찬에서는 환영인사말언이 있었으며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오찬이 끝난 후 문재인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우리측 고위급대표단전원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였다.

이날 김영남동지와 김여정동지는 청와대방명록에 글을 남기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고위급대표단 남조선대통령과 녀자빙상호케이 북남단일팀 경기 관람

【평양 2월 10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고위급대표단은 남조선의 문재인대통령내외와 함께 10일 제23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 녀자빙상호케이 북남단일팀과 스위스팀사이의 경기를 관람하였다.

우리 민족올림픽위원회대표단과 스위스대통령 알랭 베르세,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토마스 바흐를 비롯한 외국손님들, 체육애호가들, 남녀의 동포들이 경기를 관람하였다.

북과 남의 응원단과 남녀동포들은 통일기를 흔들고 열렬한 박수갈채와 환호를 터쳐올리며 하나의 언어로 서로 찾고 부르고 마음을 합쳐 재치있게 락을 붙아가는 단일팀 선수들의 사기를 북돋아주었다.

선수들의 경기활동과 응원단의 감동적인 모습은 관중들에게 우리 겨레야말로 떨어져 살수 없는 단일민족임을 다시금 절감하게 하였다.

경기가 끝난 다음 김영남동지, 김여정동지는 문재인대통령과 함께 북남단일팀 선수들을 만나 격려해주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

사상의 강국을 일떠세우신 희세의 위인

우리 조국은 세계에 유일무이한 정치사상강국이다.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자주시대 혁명투쟁의 앞길을 휘황히 밝히시고 우리 조국을 위대한 사상의 강국으로 건설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업적은 세월과 더불어 길이 빛나고있다.

우리 장군님은 사상리론의 영재, 거장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장군님께서는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끊임없이 심화발전시키고 풍부화하심으로써 김일성주의를 위대한 생활력과 영원한 생명력을 가진 불멸의 혁명사상으로 더욱 빛나게 하시였다.》

시대와 력사는 위대한 사상에 의하여 변혁되고 추동된다.

비범한 사상리론적예지를 지닌 위인만이 시대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을 정확히 반영하고 그 실현의 길을 과학적으로 밝혀주는 위대한 사상리론을 내놓을수 있다.

로동계급의 혁명운동력사는 우리 장군님처럼 수령의 혁명사상을 과학적으로 정식화하고 시대의 지도사상으로 선포하는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이룩하신 걸출한 사상리론가를 알지 못하고있다.

지금도 귀기울이면 김정일동지는 자신의 혁명사상을 이미 오래전에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로 정식화하였다고 하시면서 자신의 혁명사상을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의 3대구성체계로 정식화한것도 만점이며 매 구성체계를 론리적으로 전개한것도 만점이라고 하시던 어버이수령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듯싶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대동강반을 지나시다가 주체사상탑을 바라보시며 아마 자신께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정식화하기 위하여 학창시절부터 읽은 책을 차곡차곡 쌓아놓는다면 저 주체사상탑을 고이고있는 대돌만큼 될는지도 모른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에 기초하여 우리 당의 최고강령을 새롭게 규정하는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간주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령님의 고전적로작들을 전면적으로 연구학습하시고 선행한 로동계급의 혁명리론들을 연구분석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감회깊이 회고하시였듯이 로동계급의 100년사상사를 약 3년반동안에 총화한다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였다. 그이께서는 어떤 때에는 간단한 표현을 놓고도 며칠동안 생각하시였으며 어떤 표현은 몇달동안 생각해보기도 하시였다.

선행한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사를 분석총화하시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오늘에 와서 혁명과 건설을 옳바르게 이끌어나갈수 있는 사상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밖에 없다고 우리는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확신성있게 말할수 있다.

인민대중의 자주위업발전의 새시대를 열어놓은 주체사상의 변혁적역할을 명철하게 통찰하신 우리 장군님께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과학적으로 정식화하기 위해 바치신 탐구와 사색의 낮과 밤을 어찌 격정없이 돌이켜볼수 있겠는가.

주체60(1971)년 8월 위대한 장군님을 모신 렬차가 북쪽으로 달리고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 얼마간의 휴식을 보장해드릴수 있게 되였다는 생각으로 일군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였던 그 길이 후세에 길이 남을 력사의 로정으로 될줄 그때 누구도 알수 없었다.

여느때와 다름바없이 긴장한 사업과 사색으로 날과 날을 보내시던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무포를 찾으시여 낚시를 드리우시고 깊은 사색에 잠기시였다.

수행한 일군이 인기척을 내서야 그를 돌아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오늘 수령님의 거룩하신 발자취가 어려있고 항일혁명선렬들의 뜨거운 피가 스며있는 두만강가에서 이렇게 낚시를 드리우고 사색을 더듬으니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정식화하는데서 막혔던 생각이 확 트인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은 그 어느 고전에도 비기지 못할 폭과 깊이를 가지고있으며 수령님의 혁명력사는 인류가 영원히 심장속에 간직해야 할 불멸의 영웅서사시라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거듭 **《김일성주의!》**라고 외우시면서 두만강의 흐름이 영원하듯이 김일성주의는 오늘의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혁명의 유일한 지도사상이며 미래의 사회에서도 변함없이 빛을 뿌리게 될 위대한 혁명사상이라고 강조하시였다.

김일성주의의 영원한 생명력을 확신하시는 그이의 모습은 얼마나 숭엄하시였던가.

주체63(1974)년 2월 19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선로동당 제3차 사상일군대회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시고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강령을 선포하시였다.

《현시기 우리 당 사상사업앞에 나서는 기본임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는것입니다.》

《김일성주의는 한마디로 말하여 주체의 사상, 리론 및 방법의 체계입니다. 다시말하여 주체사상과 그에 의하여 밝혀진 혁명과 건설에 관한 리론과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입니다.》

뜻깊은 2월 19일과 더불어 력사에 빛나는 위대한 장군님의 이 고전적명제들은 비범한 예지와 통찰력, 특출한 실력을 지니신 천재적인 사상리론가로서의 우리 장군님의 위대성을 오늘도 만사람의 가슴에 깊이 새겨주고있다.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사상을 심화발전시켜나가는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사상리론사업에서 견지하여오신 철칙이였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높은 지성세계를 지니고계시였기에 우리 장군님의 사상리론활동의 령역은 참으로 넓고 방대하였다.

당건설로부터 시작하여 조국통일위업과 세계자주화위업에 이르기까지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를 다 포괄한 위대한 장군님의 비범한 사상리론활동은 우리 당과 인민이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위업을 힘차게 전진시켜나갈수 있게 한 원동력으로 되였다.

력사가 보여주는것처럼 령도자의 위대성은 무엇보다 사상리론의 위대성에 있다.

사회주의위업이 심각한 좌절과 시련을 겪고있을 때에도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인 **《사회주의건설의 력사적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 **《사회주의에 대한 훼방은 허용될수 없다》**,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를 비롯한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여 인류가 사회주의에로 나가는것은 막을수 없는 력사발전의 법칙이라는것을 철의 론리로 확증하시고 인류의 자주위업, 세계사회주의위업을 승리에로 선도하신 우리 장군님이시였다.

그처럼 준엄하였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우리 군대와 인민이 단 미대결전에서 천전천승을 이룩하며 사회주의를 빛나게 수호하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진격로를 열어놓을수 있은것도 우리 장군님께서 높이 추켜드신 위대한 선군사상이 있었기때문이다.

사회주의가 존재하느냐 망하느냐 하는 엄숙한 력사의 물음이 제기되던 그 시기 민족의 운명을 걸머지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나라의 천사만사를 돌보시는 속에서도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사회주의조국의 찬란한 미래를 담보하시였다.

기창한 혁명실천속에서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시대의 앞길을 밝히시며 혁명과 건설의 세기적모범을 창조하신 우리 장군님은 참으로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는 우리 당과 인민이 맞이한 또 한분의 걸출한 사상리론가이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비범한 사상리론활동으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지도사상으로 정식화하시고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우리 당의 최고강령으로 제시하시였으며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카가리키는 주체혁명위업완성의 한길로 우리 인민을 이끌어주고 계신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높이 모시여 위대한 장군님께서 시대와 혁명앞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사상리론적업적은 영원히 빛을 뿌릴것이다.

본사기자 백 영 미

사상의 일색화를 실현하시는 길에서

가장 선차적인 사업

주체56(1967)년도 다 저물어가던 12월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중앙위원회의 한 일군에게 어버이수령님의 로작들을 최대의 충정심을 가지고 출판하여 널리 보급하는것은 우리 당 사상사업 부문앞에 나선 가장 선차적이며 영예로운 과업이라고 가르쳐주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필하신 여러건의 로작원본들과 함께 조국에 개선하신 직후에 수령님께서 찍으신 력사적인 사진문헌을 내놓으시였다. 그러시면서 수령님의 로작출판사업을 최상의 높이에서 보장할데 대하여 거듭 강조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고결한 충정심과 세심한 지도에 의하여 **《김일성저작선집》**을 비롯한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이 수많이 출판발행되고 인민들에게 귀중한 사상정신적량식을 안겨주게 되였다.

사회주의위업수행의 필수적요구

사회주의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사상사업을 모든 사업에 앞세워나가야 한다는것이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상사업을 앞세우는것은 사회주의위업수행의 필수적요구이다》**를 발표하시여 사회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로동계급의 당의 사상사업은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사상을 심화발전시키는 사상리론사업이며 인민대중을 사회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는 사상교양사업이라는데 대하여 명철하게 밝히시였다.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사상사업을 앞세워나가는 여기에 사회주의위업을 전진시키며 승리적으로 완성해나가는 열쇠가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안겨주신 탁월한 사상리론적지침이 있어 격변하는 세계정치정세의 소용돌이속에서도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이 힘차게 전진할수 있었다.

생명선

언제인가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사상교양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민족적자존심과 조선민족제일주의도 주체사상을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다고 하시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남들이 하지 못하는것을 당당히 해내고있는것도 주체사상이 있기때문이라고, 민족적자존심을 높이기 위한 교양을 비롯하여 모든 사상교양사업을 주체사상을 출발점으로, 바탕으로 하여 진행하며 주체사상교양에 귀착시켜야 한다고 간곡하게 교시하시였다.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사상교양사업을 진행하라!

여기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우리 군대와 인민을 무장시켜 그들을 수령결사옹위투사들로, 불굴의 정신력의 강자들로 억세게 키우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높으신 뜻과 확고부동한 의지가 담겨있었다.

주체사상이야말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백승을 떨치게 하는 필승의 보검, 우리 식 사회주의의 영원한 생명선이다.

본사기자

백두산에 오르시여

조선혁명의 뿌리가 내린 혁명의 성산 백두산!

백두의 칼바람을 맞으며 백두산에 오르면 억천만년 죽더라도 원쑤를 치자고 웨치면서 항일의 전장에 더운 피를 뿌려가던 투사들의 불굴의 의지가 가슴에 파고들고 조선혁명을 끝까지 완성하겠다는 결심이 더욱 굳어진다.

뜻깊은 2월과 더불어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불타고 잊지 못할 추억들이 파도쳐오는 이 시각 그이께서 사나운 눈보라를 헤치시며 백두산에 오르시였던 수십년전의 그날이 뜨겁게 안겨온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백두산은 우리 나라의 유구한 력사와 더불어 민족의 슬기와 넋이 깃든 조종의 산이며 조선혁명의 시원이 열리고 뿌리가 내린 혁명의 성산입니다. 백두산에 오르면 누구나 혁명적각오가 굳세여지고 혁명할 결심이 더욱 확고해집니다.》

주체61(1972)년 5월 위대한 장군님께서 백두산에 오르시였던 그날은 날씨가 무척 사나왔다. 아침부터 함박눈이 펑펑 내리고 눈보라가 세차게 일어번지여 한치앞도 분간하기 어려웠다.

눈보라가 너무도 기승을 부려 일군들은 백두산에 오르시려는 위대한 장군님께 후날 날씨가 좋을 때 오르실것을 거듭 아뢰였다.

그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동무들은 왜 내 마음을 몰라줄니까라고 하시며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내가 눈보라 사나운 이런 날에 백두산에 오르려고 하는것은 백두밀림에 차넘치던 백두의 혁명정신이 어떤 간고한 시련속에서 이루어졌는가 하는것을 마음속으로나마 더 깊이 체득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백두의 사나운 눈보라와 맞서도 보고 험한 눈길도 헤쳐보면서 고난의 행군길을 돌이켜보아야 조선혁명이 어떤 험로를 헤쳐왔는가 하는것을 깊이 깨달을수 있고 앞으로 우리 혁명의 앞길에 그 어떤 난관이 가로놓여도 쉽게 극복할수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서 빨리 백두산정으로 오르자고 하시며 앞장에서 눈보라를 헤치시였다.

드디여 일행이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 올랐을 때였다. 백두산은 광풍을 멈추고 자기의 장엄한 자태를 드러내놓았다. 바라볼수록 장관이였다.

장쾌한 그 모습에 넋을 잃은듯 모두가 숭엄한 감정에 휩싸여있는데 위대한 장군님의 음성이 백두산마루에 쩡쩡 울리였다.

우리 당은 앞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수령님의 존함과 접무시켜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여 선포하려고 합니다. 김일성주의기치아래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면 많은 난관과 시련이 앞을 가로막을것입니다. 그러나 김일성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싸워나간다면 남먼저 혁명의 종착점에 가닿을것입니다. 영원히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살며 싸워나가자. 이것이 오늘 내가 백두산에 올라 더욱 굳게 다지게 되는 결의이고 또 동무들에게 하고싶었던 말입니다.

김일성주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색의 낮과 밤을 이어가시며 무르익혀오신 자신의 구상을 바로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 오르시여 절대불변의 신념과 의지로 더욱 굳히시였던것이다.

그때로부터 2년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강령을 선포하시였다.

정녕 40여년전 우리 장군님께서 헤치신 백두산에로의 눈보라길은 위대한 김일성주의와 더불어 우리 당과 혁명력사에 깊이 새겨진 행군길이 아니였던가.

그렇다.

백두산과 더불어 우리 혁명은 새로운 리정표들을 력사에 새기며 승리의 한길을 따라 전진하였고 조선은 백두산해돋이처럼 년대와 년대를 이어, 세기와 세기를 이어 온 누리에 밝은 빛을 뿌리고있는것이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위한 진군길에서 백두산을 찾고찾으시며 온 나라에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이 세차게 나래치게 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여 오늘도 이 땅에는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과 사변들이 련이어 펼쳐지고있다.

《가리라 백두산으로》의 노래높이 부르며 누구나 백두산을 마음속에 소중히 안고살 때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존엄과 기개는 만방에 떨쳐질수 있다.

본사기자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바치신 불면불휴의 로고를 가슴깊이 새겨간다.
—조선혁명박물관에서— 본사기자 리 동 규 찍음

위대성교양을 실속있게

증산군백송원료동원사업소당세포에서 당원들과 종업원들속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령도업적을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해나가고있다.

당세포에서는 위대성교양사업계획을 주별, 월별로 구체적으로 세운데 기초하여 종업원들속에서 도서해설, 읽은책발표모임 등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위대성교양사업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뿐만아니라 당보에 실리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혁명활동보도들과 기사들을 통한 위대성교양사업도 적극 진행해나가고있다.

얼마전에도 사업소의 일군들은 작업의 쉴참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사랑과 령도의 위대성에 대하여 감명깊게 이야기해주어 종업원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리였으며 그들모두가 충정의 마음을 더욱 굳게 가다듬게 하였다.

위대성교양사업이 힘있게 벌어지는 속에 이곳 사업소의 모든 종업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갈 불같은 일념을 안고 맡은 혁명과업수행에서 집단적혁신을 일으켜나가고있다.

로농통신원 조 정 호

만리마대진군에서 발휘되고있는 우리 인민의 불굴의 정신력

전당, 전군, 전민이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혁명적인 총공세를 과감히 벌려나가고있다. 공화국력사를 대전진시대로 이끌어온 만리마대진군에서 이룩한 력사적승리를 도약대로 삼고 비약의 박차를 가하며 신심드높이 나아가는 오늘의 장엄한 총진군은 우리 인민의 불굴의 정신력의 일대 과시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의 만리마대진군에서 영웅적조선인민의 불굴의 정신력을 남김없이 폭발시켜야 합니다.》

사회주의건설에서 가장 위력한 무기는 사상이며 인민대중의 사상정신력이 모든것을 결정한다. 투철한 자주사상으로 무장한 인민대중의 신념과 의지의 힘이 최대로 분출될 때 혁명과 건설에서 일대 비약의 폭풍이 일어나게 된다.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력사는 불굴의 정신력으로 만난을 헤치며 기적을 창조하여온 영웅적행로이다. 우리 인민은 전후 제대미만 남은 페허우에서 짧은 기간에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를 일떠세운 인민이며 제국주의자들의 끈질긴 침략과 제재책동속에서도 로동당시대의 전성기를 펼치고 강국건설의 력사적포성을 울린 인민이다. 우리 인민에게 자기의 꿈과 리상을 제손으로 실현하겠다는 투철한 신념과 만난을 맞받아나아가는 굴함없는 공격정신이 없었더라면 최상의 경지에 오른 주체조선의 전략적지위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을것이며 만리마속도창조로 들끓는 오늘에 대하여서도 말할수 없을것이다. 우리 인민의 정신력이야말로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 영웅신화들을 낳는 근본원천이다.

오늘의 만리마대진군은 당과 혼연일체를 이룬 천만군민의 강의한 정신력에 의하여 추동되는 사상의 대진군이다. 지금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은 존엄높은 우리 공화국의 전진을 가로막기 위하여 최후발악하고있다. 우리의 사회주의건설력사에서 적대세력들의 도전과 방해책동이 언제 한번 그칠새 없었지만 오늘처럼 악랄하게 감행된적은 일찌기 없었다. 혁명의 원쑤들이 아무리 발악하여도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만장약하고 신심드높이 투쟁해나가는 우리 인민의 앞길은 그 무엇으로써도 가로막을수 없다.

우리 인민의 불굴의 정신력은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는데서 힘있게 과시되고있다.

혁명은 본질에 있어서 당의 사상과 결심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라고 말할수 있다. 당정책에는 혁명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이 반영되여있으며 투쟁목표가 제시되여있다. 당정책이 어떻게 관철되는가 하는것은 대중의 정신력이 어떻게 폭발되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다.

만리마대진군에 떨쳐나선 우리 인민의 투쟁정신에서 근본적을 이루는것은 당에 대한 끝없는 충정과 결사관철의 정신이다. 우리 인민은 당의 구상과 의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당이 바란다면 바다도 메우고 산도 떠옮기는 영웅적기질의 소유자가 바로 우리 인민이다. 지난해 우리의 국방과학전사들은 당의 전투적과업을 받들고 결사전을 벌려 민족사적인 륙대사변을 다계단으로 안아왔으며 려명거리건설자들은 만리마속도로 질풍같이 내달려 1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우리 당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을 현실로 펼쳐놓았다. 우리 인민이 조건과 환경은 그 어느때보다 어려웠지만 당에서 준 과업을 당에서 정해준 시간에, 당이 요구하는 높이에서 결사관철할수 있은것은 당의 구상을 하늘이 무너져도 두발을 뻗치고 일어나 기어이 실현하려는 사상이 투철하였기때문이다.

당정책옹위전에서 우리 인민이 추켜든 구호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결사대 앞으로!》, 여기에는 혁명하는 인민이 당의 사상과 로선을 어떤 자세와 립장에서 받들며 어떤 각오로 당앞에 다진 맹세를 실천해나가야 하는가가 함축되여있다. 지난해 3년분 인민경제계획을 수행한 고경찬영웅소대원들의 투쟁의 자욱속에 새겨진것도, 상원시멘트련합기업소와 덕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를 비롯한 전형단위 로동계급의 심장속에 맥박친것도 당정책결사관철의 정신이였다. 전체 인민이 당중앙뜨락에 운명의 피줄을 잇고 결사전을 벌려왔기에 우리 당의 결심은 곧 과학이고 진리이며 승리이라는것이 현실로 증명될수 있었다.

오늘의 만리마대진군은 당의 령도따라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념원, 강국념원을 하루빨리 실현하기 위한 전인민적인 총공격전이다. 이 투쟁에서 승리의 근본열쇠는 당은 인민을 믿고 인민은 당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따르는 혼연일체의 힘을 남김없이 폭발시키는데 있다. 우리 인민은 당의 요구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며 불굴의 정신력을 최대로 분출시켜 당정책을 가장 전신하게, 사소한 편차도 없이 완전무결하게 끝까지 관철해나갈것이다.

우리 인민의 불굴의 정신력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키고있는데서 뚜렷이 표현되고있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은 군사와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세계를 앞서나가기 위한 기창한 투쟁이다. 걸음걸음 막아서는 천만시련을 맞받아뚫고 강국건설의 전전선에서 기적적승리를 쟁취하자면 강한 정신력이 있어야 한다.

강한 정신력은 역경속에서도 대혁신, 대비약을 낳는 원천이다. 지난해 우리 인민의 투쟁은 최악의 조건에서 진행되였다. 하지만 우리 인민은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만난을 이겨내며 만리마속도창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렸다. 수많은 단위들에서 최고생산년도 수준을 돌파하고 2년분, 3년분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한 만리마기수대렬이 끊임없이 늘어났다. 이들의 심장속에 하나같이 차넘친것은 누가 최후에 웃는가 보자, 대고조의 위대한 승리로 원쑤들의 더러운 몰골에 날카로운 비수를 박고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주체조선의 기상과 본때를 힘있게 과시하려는 의지였다. 이런 정신, 이런 투쟁기질이 있었기에 모든것이 무족하고 어려운 속에서도 세계가 알지 못하는 건설신화도 창조할수 있었고 황금산, 황금벌, 황금해의 새 력사도 펼칠수 있었다.

성과에 만족함이 없이 굴함없는 공격정신으로 새 승리를 향하여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는것은 우리 인민의 투쟁기질이다. 새해의 첫 진군에서 황철의 로동계급은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는 정신으로 주체철생산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으며 농업과 경공업을 비롯한 여러 전선의 근로자들이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위대한 정신력을 용록발시켜 세상을 놀래우는 영웅신화들을 끊임없이 창조함으로써 9월의 정촉광장에 펏펏이 들어서겠다는것이 우리 인민의 불같은 열의이다.

무장조국건설의 제일밑천은 억대의 재부가 아니라 혁명적인 사상으로 무장한 인민의 정신력이다. 기적창조의 열쇠도, 대혁신, 대비약도 정신력발동에 있다는것, 바로 이것이 준엄한 실천투쟁속에서 확증된 진리이며 법칙이다. 인류는 이제 위대한 사상과 불굴의 정신력으로 결사전을 벌려나가는 우리 인민이 어떤 위훈을 세우고 자기 국가의 창건기념일을 성대히 경축하는가를 똑똑히 보게 될것이다.

우리 인민의 불굴의 정신력은 만난시련속에서도 자력자강의 승전로성을 드세게 울려나가고있는데서 높이 발현되고있다.

만리마대진군은 우리의 힘과 기술, 자원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해나가는 자력자강의 창조대전이다. 우리 식의 투쟁방식, 창조방식으로 한달음에 만리를 달려야 하는 이 투쟁에서의 성과여부는 전체 인민이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어떻게 발휘해나가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자력갱생은 우리 인민의 투쟁전통이다. 우리 인민은 항일전의 나날에도 연길폭탄정신으로 굴함없이 싸워 조국해방을 이룩하였고 군자리혁명정신과 천리마의 정신, 강계정신으로 혁명의 년대와 년대들을 백승으로 수놓아왔다. 자체의 힘으로 기어이 세계가 부러워하는 락원을 일떠세우겠다는 결사의 각오와 투쟁정신만 있으면 역경도 순경으로 전환시킬수 있고 고난속에서도 락원의 길을 열어놓을수 있다는것이 우리 혁명의 력사총화이다.

우리 인민의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은 시련이 겹쌓일수록 더욱 강렬해지는 혁명정신이다. 우리 인민은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야만적인 제재봉쇄책동속에서도 자체의 힘으로 기어이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겠다는 불굴의 정신력, 강원도정신으로 자력갱생의 승전로성을 더 높이 울리고있다. 지난해 우리가 만든 새형의 뜨락또르와 자동차들의 동음이 세차게 울리고 례년에 보기 드문 파일풍작이 마련된것과 같은 자랑찬 성과들은 우리 인민의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다.

우리 인민이 발휘하는 자력자강의 정신력은 일시적인 난관이나 급변하는 정세를 타개해나가기 위한것이 아니다. 자체의 힘과 기술, 지혜에 의거하여 더 높이, 더 빨리 전진하려는 우리 인민의 정신력의 밑바탕에는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사는 인생관이 놓여있다. 자기 대에는 비록 락을 누리지 못해도 자력갱생의 토대를 억척같이 쌓아놓아야 미래의 우리 조국이 더 강성번영하고 후대들의 행복이 꽃펴날수 있기에 시련도 웃으며 헤쳐나가고있는것이다. 만리마의 기상이 나래치는 우리 조국, 세계가 공인하는 전략국가의 지위는 우리 인민이 래일에 사는 인생관을 지니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남김없이 분출시켜 안아온 고귀한 결정체이다.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며 여기에 주체조선의 백승의 진로가 있다. 이 진리는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여도 영원히 변할수 없다. 우리 인민은 앞으로 최악의 시련이 닥쳐온다고 하여도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사회주의승리봉을 향하여 더욱 힘차게 질풍노도처 나갈것이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불굴의 정신력을 최대로 폭발시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기적적승리를 다계단으로 펼쳐놓음으로써 공화국창건 일흔돐이 되는 올해를 새로운 영웅신화창조의 해로 빛내여야 할것이다.

박사 한 은 경

우리의 힘과 기술, 자원으로 질좋은 제품을 더 많이 개발생산하자

적은 투자로 큰 경제적실리를

룡성기계련합기업소 일군들의 사업에서

시대의 발전과 함께 창조의 기쁜도 나날이 새로와지고있다.

오늘날 당과 국가앞에 한개 단위를 책임진 일군들은 질좋은 제품의 개발과 생산을 적극 추동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는가.

룡성기계련합기업소 일군들의 사업을 놓고 그 대답을 찾아본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자립경제발전의 지름길은 과학기술을 앞세우고 경제작전과 지휘를 혁신하는데 있습니다.》

최근 련합기업소에서는 10㎡ V형압축기를 새로 개발하였다. 이 압축기는 지난 시기 련합기업소에서 생산하던 같은 능력의 압축기에 비해 무게는 3분의 1정도밖에 되지 않고 부피도 훨씬 작다. 뿐만아니라 진동이 거의나 없고 전력소비가 적으며 운반하기도 편리한것으로 하여 서부지구의 여러 탄광들에서 호평을 받고있다. 채굴공업과 화학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효과적으로 쓰일수 있는 이 압축기는 지금 많은 일군들의 관심을 모으고있다. 성과의 비결에 대한 련합기업소일군들의 이야기는 교훈적이였다.

사실 련합기업소에서는 지난 시기 10㎡압축기생산에서 적지 않은 애로를 느끼고있었다고 한다. 특히 강재소비량이 많아 원가가 높고 부피가 큰것으로 하여 리용에서도 여러모로 불리한것이 문제였다. 압축기를 요구하는 단위들로부터 외면을 당할 때마다 일군들의 마음은 납덩이를 안은듯 무거웠다. 우리의 힘과 기술, 자원으로 세계적인 우리의 것을 더 많이 창조할데 대한 당의 뜻에 비추어볼 때 결코 스쳐보낼수 없는 문제였다.

일군들은 채굴공업과 화학공업부문의 생산단위들에서 적극 리용할수 있는 능률이 높은 압축기를 개발하기 위한 대담한 목표를 내세웠다. 여기에서 론의의 초점으로 된것이 최근 세계적추세로 되고있는 V형압축기였다. 기술협의를 위해 련합기업소책임일군의 방에 모여앉은 여러 일군들과 기술자들이 마주한것은 설계도면이 아니라 압축기의 외형을 찍은 한장의 사진뿐이였다.

V형압축기개발과 관련한 초보적인 경험도 없이 동자원리 하나만을 놓고 첫시작을 떼야 하는 어려운 창조의 길이였지만 이들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다. 강재소비량을 결정적으로 줄이고 부피가 작은 V형압축기를 개발하기 위한 토의는 수십차례나 진행되였다.

이 압축기의 개발에서 일군들이 중시한것은 원단위소비기준을 극력 낮추는것이였다. 수십차례의 기술협의회에 제기된 방안이 무려 6가지나 되였다는 사실 하나만 놓고도 련합기업소 일군들과 기술자들이 최소한의 투자로 경제적실리가 큰 압축기를 개발하기 위해 얼마나 고심하였는가를 잘 알수 있다.

설계연구소의 설계가들은 종전의 압축기설계방법에서 완전히 벗어나 우리 식의 새로운 압축기를 설계하기 위해 여러달동안이나 탐구의 낮과 밤을 이어갔다. 련합기업소의 일군들은 여러가지 방안의 설계도면들을 놓고 소재, 가공, 열처리, 자재부분의 일군들, 기능공들과 한자리에 모여앉아 토의를 심화시켰다.

일군들과 설계가들, 생산자들의 두뇌가 하나로 합쳐지니 새로운 기술혁신안들이 꼬리를 물고 쏟아져나왔다. 특히 압축기의 중요부분품인 고리형변을 판형변으로 전환시키자는 안은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다. 압축기사용과정에 계속 마모되여 자주 교체하지 않으면 안되는것으로 되여있었던 변을 새롭게 개조하면 구조가 간단해지고 제작도 쉬워지며 수명까지 훨씬 길어져 실리가 크기때문이였다.

이것은 자그마한 세부에 불과하다. 설계가들은 토의과정에 제기된 의견들을 종합하여 부단한 수정작업을 하면서 10㎡ V형압축기의 최종적인 설계를 완성하였다.

그후 련합기업소일군들은 최단기간에 새형의 압축기를 제작하기 위한 전투자전과 지휘를 박력있게 하였다. 책임일군들부터가 앞세를 메고 각종 자재들을 해결하기 위해 발이 닳도록 뛰였고 부분품가공을 따라세우기 위한 사업도 립체적으로 내밀었다.

새것의 창조는 탄탄대로가 아니였다. 련합기업소가 생겨 처음 만들어보는 부분품들이 대다수였고 장비도 없었다. 하지만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부분품들의 정밀도를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기 위해 서로의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나갔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 위한 격전끝에 드디여 시제품이 완성되게 되였다.

련합기업소일군들은 시제품을 만들어낸데 만족하지 않았다. 현실속에서 사용자들의 목소리도 들어보고 그들의 의견을 충분히 참고하여 부족점들을 퇴치하면서 기술적으로 부단히 세련시켜나가야 한다는것이 그들의 확고한 립장이였다.

서부지구의 여러 탄광들에 새형의 압축기시제품들을 보내준 후 련합기업소의 일군들은 한개 단위씩 맡고 내려가 사용과정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알아보았다. 사용자들의 의견도 듣고 압축기들의 가동과정을 제눈으로 직접 살펴보는 과정에 그들은 여러건의 기술개조방안을 탐구하였으며 설계에 속속 반영하였다.

지난 시기 같은 용량의 압축기 한대를 만들던 강재로 거의 석대분에 달하는 압축기를 만들수 있고 부피가 매우 작아 리용단위들에서 설비설치와 운반에 들던 품도 덜게 되였다니 얼마나 좋은 일인가.

지금 이곳 련합기업소에서는 10㎡ V형압축기를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돌격전이 벌어지고있다. 이와 함께 용량이 보다 크면서도 무게가 작은 압축기개발사업도 추진되고있다.

미제를 비롯한 온갖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이 극도에 이른 지금 우리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한 우리 식의 제품들을 더 많이 개발생산하는것은 어느 부문, 어느 단위에서나 사활적인 요구로 나서고있다.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만장약하고 대담하게 작전하고 완강하게 일판을 벌려나갈 때 새로운 혁신이 창조된다는것이 이곳 련합기업소 일군들의 사업을 통해 우리가 찾게 되는 결론이다.

본사기자 김 충 성

질제고도 두뇌전, 기술전이다

안주절연물공장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제국주의자들의 경제기술적봉쇄를 짓부시고 우리의 자강력을 급격히 증대시키며 모든 부문을 빨리 발전시키자면 과학기술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합니다.》

질제고사업에서 성과가 있는 단위들에는 공통점이 있다.

과학기술을 틀어쥐고 두뇌전, 기술전의 된바람을 일으키고있는것이다.

안주절연물공장도 례외로 되지 않는다. 최근년간 공장에서는 지난 시기 수입에 의존하던 침강방지제와 피막방지제를 자체의 힘과 기술로 질좋게 개발하여 침감생산에 리용하고있다.

침감생산공정을 현대화하기 위한 사업도 힘있게 내밀어 침감의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고있다. 이러한 사실을 놓고 다시금 느끼게 되는것은 질제고도 두뇌전, 기술전이라는것이다.

침감생산공정의 현대화과정을 놓고보자. 다른 생산공정들과 마찬가지로 이 공정에서도 복잡한 화학반응이 진행된다. 외부와 밀폐되여있는 반응가마들에서 진행되는 여러가지 반응을 눈으로 볼수 없다는것은 자명한 일이다.

공정법에 따라 제정된 화학반응시간이 조금만 길어지거나 짧아져도 제품의 질이 떨어질수 있었다.

시간의 함수라고도 말할수 있는 매 공정들의 반응과정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는것은 질보장에서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였다. 지난 시기 공장에서는 시료를 떼낸 다음 시약을 첨가하여 변화되는 색갈이나 생성되는 침전물을 놓고 눈으로 질을 검사하군 하였다. 그런데 분석공들의 능력에 따라 질검사결과는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기능이 제일 높은 분석공의 검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분석의 질을 제고하도록 하였지만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말할수 없었다.

이 문제를 가장 정확히 해결할수 있는 길은 과학기술을 틀어쥐는데 있었다. 일군들은 낡은 측정방법을 없앨 결심을 하였다.

그 과정에 침감생산공정의 반응가마속에 에스테르측정장치를 설치하자는 혁신적인 안이 나왔다. 수지합성과정에 나오는 물을 계량하여 여러 단계로 진행되는 반응상태의 결과를 과학적으로 알아내자는 의견도 제기되였다.

일군들은 이러한 착상들에 기초하여 모든 측정값들을 콤퓨터에 자동적으로 현시하도록 하기 위한 목표를 내세웠다.

일군들은 제품의 질을 과학적으로 담보할수 있는 길은 오직 두뇌전, 기술전이라는 확고한 관점밑에 이 사업을 근기있게 밀고나갔다. 결과 침감생산의 공정별검사에서 눈짐작이라는 말이 자취를 감추게 되였다.

지난 시기 침감생산을 위해 수입에 의존하던 침강방지제와 피막방지제를 자체로 만들어낸것도 두뇌전, 기술전이 안아온 결실이다. 일러를 원쑤들의 그 어떤 제재책동에도 끄떡없이 제발로 걸어나가는 공장으로 만드는데서 우리의 침가제에 의한 침감생산은 사활적인 문제로 나섰다.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피라는 탐구와 노력을 기울이며 우리의 원료에 의한 침강방지제와 피막방지제 개발에 성공하였다. 하지만 두뇌전, 기술전의 길에서 만족이란 있을수 없었다. 이들은 여러가지 출발원료들을 부단히 새롭게 바꾸면서 침강방지제와 피막방지제의 질을 보다 개선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리고있다.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과학기술을 보검으로 틀어쥐고 우리 식으로 우리의것을 더 많이, 더 좋게, 더 빨리 창조하기 위해 힘차게 내달리고있다.

본사기자

실효를 거둔 제품품평회

백송종합식료공장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경공업부문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소비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켜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필수품, 자기 단위를 상징하고 대외시장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제품을 생산하여야 합니다.》

최근 백송종합식료공장에서 생산되는 빵과 사탕을 비롯한 제품들에 대한 사람들의 수요가 높다.

앞선 단위들의 수준을 하루빨리 따라잡기 위한 공장일군들의 기업전략, 경영전략에 성과의 중요한 요인이 있다. 여기서 특징적인것은 제품품평회를 방법론있게 진행하여 실효를 높이고있는것이다.

사실 제품품평회는 어디서나 진행하고있다. 이 공장도 마찬가지이다.

일군들이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제품품평회의 중요성에 대하여 다시금 깊이 느낀 계기가 있다.

몇해전까지만 하여도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질은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원만히 따라서지 못하고있었다. 그 원인의 하나는 생산자대중의 기술기능이 응당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데 있었다. 공장종업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계기라고도 말할수 있는 제품품평회를 놓고보아도 그러했다. 적지 않은 종업원들은 제품품평회에 제품을 내놓는것을 몇몇 고급기능공들만이 하는 일로 여기면서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지 않고있었다.

일군들은 작업반을 단위로 몇가지 시제품들을 제품품평회에 내놓게 하던 종전의 틀에서 벗어나 모든 종업원들이 이 사업을 자기 집일처럼 여기고 주인답게 참가하도록 요구성을 높이였다. 이와 함께 품평회에 출품된 제품들을 놓고 수요를 연구하고 원가를 따져보며 확신성있는 제품들을 생산에 넘기기 위한 조직사업을 따라세웠다.

특히 좋은 점은 새 제품개발력량을 여기에 적극 인입시킨것이라고 볼수 있다. 일군들은 기술준비원과 원단위제정원, 고급기능공들과 진취성이 강한 신입공들까지 새 제품개발사업에 망라시켰다. 그리고 이들이 제품품평회에서 우수하게 평가된 제품들을 계렬생산할수 있는 기술준비를 완성하도록 하였다. 자기들의 창안품이 기술적으로 갱신되고 생산단계에로 넘어가는것을 목격하면서 제품품평회에 대한 종업원들의 인식은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새 제품의 창안과 개발에서 실적이 있는 종업원들에 대한 평가사업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따라세우니 그들의 열의는 더 높아졌다.

일군들은 종업원들을 리론과 실천이 겸비된 인재들로 키우기 위해 주 1차 진행하는 기술학습의 날 운영도 실속있게 짜고들었다. 기술과에서 기술학습제강작성을 현실성있게 하도록 한것이 그 실례로 된다. 일군들은 기술과의 성원들이 작업반별특성에 맞는 여러가지 기술학습제강을 계획적으로 작성하여 종업원들에게 학습시키도록 하였다.

일군들은 과학기술보급실운영도 방법론있게 내밀었다. 식료공업, 기계공학과 관련한 1만 7000여건의 최신과학기술자료들과 10만건에 달하는 일반과학기술자료들을 과학기술보급실에 자료기지화하여 종업원들이 새 제품개발과 관련하여 알고싶은 문제들을 일상적으로 학습하도록 조건을 마련하여주었다.

식료공업부문에서 앞선 단위들에 대한 참관도 자주 조직하고 교환소와 상점의 관매원들로부터 수요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철 1차 종업원들에게 알려주는 사업에도 힘을 넣었다.

자기들이 생산하는 제품들에 대한 인민들의 목소리도 듣고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기 위해 스스로 요구성을 제기하는 과정을 통하여 종업원들은 제품품평회에 착상이 기발한 새 제품들을 많이 내놓게 되였다.

단설기, 빠다속빵, 락화생사탕, 들깨사탕을 비롯하여 수요가 높은 제품들은 이 과정에 개발생산된것이라고 한다.

이 공장의 제품품평회는 종업원모두가 새 기술의 창조자, 주인이 되도록 이끌어주고 인민들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며 일감을 찾도록 할 때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게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품질시험기관인증을 받기까지

대동강텔레비죤수상기공장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품질감독사업과 건설감독사업은 생산과 건설에서 질적지표에 따르는 과학기술적요구를 철저히 지키도록 감독통제를 강화하여 생산물과 건설물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중요하고 책임적인 사업입니다.》

최근 많은 단위들에서 액정텔레비죤생산이 늘어나고있다. 인민들의 높아가는 물질문화생활수준을 충족시키는데서 그 질보장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지난해 1월 대동강텔레비죤수상기공장에 액정텔레비죤들에 대한 국가적인 품질시험을 진행할수 있는 공정이 꾸려지기 시작했다.

공장일군들은 이것을 단순히 실무적인 사업으로가 아니라 인민들에게 우리것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주는 또 하나의 애국사업으로 여기고 혁명적으로 일판을 전개하였다.

시험성원선발로부터 현대적인 측정설비들을 마련하는 문제, 환경조건보장과 규격작성을 비롯하여 모든 측면에서 세계적수준에 맞는 공정을 꾸려야 하는것만을 제기되는것이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그러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자체의 힘과 기술에 의거하여 시험공정을 꾸리는 사업을 적극 밀고나갔다.

시험실환경조건은 측정결과의 믿음성을 과학기술적으로 담보하는 중요지표였다. 이들은 서로의 창조적지혜를 합치고 내부예비를 적극 동원하여 환경지표값들이 세계적수준에 도달한 성능시험실과 환경시험실을 새로 꾸리였다. 일군들은 제일 실력이 높고 경험이 풍부한 기술자들을 시험실성원들로 배치하였다.

현대적인 측정설비들과 규격들을 마련하는 사업들도 동시에 진행되였다.

현대적인 측정설비를 갖추어놓자고보니 걸린 문제가 많았다. 그러나 일군들은 측정설비들을 완비하는것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제품생산에서 선차적인 사업이라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이렇게 되여 시험실들에 10여종에 40여대에 달하는 현대적인 측정설비들이 갖추어지게 되였다.

공장의 기술집단은 국가망을 통하여 세계적인 규격들을 확보한데 이어 자체력량으로 방대한 자료들을 모두 번역하였다. 해당 기관들과의 련계밑에 액정텔레비죤의 특성에 대한 국가규격자료기지까지 구축하였다.

자기 힘을 믿고 떨쳐나선 이곳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하여 짧은 기간에 액정텔레비죤에 대한 품질시험을 진행할수 있는 공정이 꾸려졌다. 결과 공장은 국가품질시험기관인증을 받게 되였다.

공장에 꾸려진 성능 및 환경시험실들에서는 액정텔레비죤의 밝기, 대조도, 보임각, 원격조종거리를 비롯한 20여가지의 기본특성값에 대한 측정과 함께 온습도와 충격, 진동전달성을 비롯한 각종 환경시험을 충분히 진행할수 있다.

지금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새로 꾸려진 품질시험공정마다에서 제품의 질평가사업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최영조

질좋은 천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사리원방직공장에서— 본사기자 찍음

설비개조를 목적지향성있게

청진어구공장에서 설비개조를 제품의 질제고를 위한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보고 목적지향성있게 밀고나가고있다.

이들은 해당 부문 기술자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정방기, 합사기를 비롯한 설비들을 종전보다 구조가 간단하면서도 생산물의 질을 높일수 있게 개조해나가고있다. 특히 제동띠와 치차류를 비롯한 적지 않은 부분품들을 쓰지 않으면서도 설비들을 가동시킬수 있게 하는데 힘을 넣고있다. 그리하여 적은 원가로 질좋은 바줄을 생산할수 있는 기술적토대가 마련되고있다.

일군들은 종업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여 개조된 설비들의 기술적성능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하고있다. 주 1차 진행하는 기술학습에 일군들과 오랜 기능공들이 강사로 출연하여 종업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부단히 끌어올리고있다. 학습제목들에는 종업원들이 현시기 공장에서 기술개조한 설비들을 원만히 다루도록 하는 문제와 제품의 질을 높이는 문제를 다같이 반영하고있다. 이 계기를 통하여 공장종업원들은 맡은 설비들의 구조와 동작원리를 더욱 환히 꿰들고 설비들을 기술적으로 보다 갱신하기 위한 착상도 무르익히고있다.

일군들은 목요설비점검검열의 날 운영을 짜고들어 모든 생산자들이 설비의 주인, 기술관리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더욱 깊이 간직하고 이 사업에 참가하도록 하고있다.

본사기자

방법이 참신해야 성과를 거둘수 있다

창광원 초급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위대성교양을 방법론있게 하는것이 왜 중요한 문제로 나서는가. 창광원 초급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이 그에 대한 대답을 주고있다.

지난해 9월 어느날 김춘심초급당위원장의 방에 한 손님이 찾아왔다. 그는 방송을 듣다가 창광원의 향수분무기에 어려있는 위대한 장군님의 사적내용을 알게 되였는데 여기에 왔던김에 향수분무기를 관리하는 안내원을 만나 그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물어보았다고 하였다. 그런데 충분한 대답을 듣지 못했다는것이였다.

알고보니 그 안내원은 새로 임직하여 첫 근무를 섰었다. 그러다나니 그에 대한 사적내용을 구체적으로 몰랐던것이다.

이 일을 통해 초급당일군은 종업원들속에서 위대성교양을 더욱 심화시켜야겠다는 결심을 굳혔다.

이것은 세대교체가 이루어지는 조건에서 종업원들이 당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영광의 일터에서 일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봉사활동을 더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문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조직들은 사상사업을 자기 단위의 특성과 실정에 맞게 참신하고 생기발랄하게 진행하는데 힘을 넣어야 합니다.》

초급당위원회는 지난 시기 위대성교양에서 거둔 성과와 경험을 살리면서 이 사업을 더욱 참신하게 진행하기 위한 작전을 폈다.

모든 당세포들에서 자기 단위에 새겨진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령도사적을 보여주는 실감있는 교양자료들을 더 만들어 작업반 휴게실들에 비치하게 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종업원들이 령도사적을 자자구구 학습하여 뼈에 깊이 새기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구체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전개해나갔다.

우선 당세포위원장들과 선동원들부터 령도사적을 손금보듯 훤하게 하였다. 그들이 대중을 교양하자면 령도사적을 제 집안일처럼 환히 알게 해야 한다고 보았던것이다.

또한 종업원들을 자기 단위에 어려있는 령도사적을 폭넓고 깊이있게 해설선전하는 교양자, 선전자로 준비시키기 위한 사업에도 품을 넣었다.

그 하나가 종업원들이 령도사적을 대중앞에서 자기 말로 이야기하게 하는 사업이였다.

의도가 있었다. 이 과정에 령도사적내용을 완전히 자기의것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되니 종업원들은 혁명사적교양실에 더 자주 찾아가 령도사적을 한가지라도 더 깊이있게 알기 위해 애쓰게 되였다.

학습과 작업시작전 시간을 리용하여 당세포위원장, 선동원, 종업원들이 령도사적을 가지고 진행하는 교양의 실효는 컸다.

모든 종업원들이 창광원에 새겨진 절세의 위인들의 령도사적을 더 깊이 새기게 되였다. 동시에 발표력도 높아졌다.

창광원에는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봉사를 받으러 온다. 이런 특성에 맞게 초급당위원회는 창광원을 근로자들에게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위대성을 선전하는 교양장소로 꾸리기 위한 사업에도 품을 넣었다.

1층에는 여러 봉사초소들이 집중되여있다. 이에 맞게 초급당위원회는 봉사초소의 거다림칸들에 5대교양자료카드를 비치해놓게 하였다.

2층과 3층의 복도벽면과 계단들에는 5대교양직관판을 게시하였다.

통속성, 문화성이 보장된 이런 교양자료들은 순간에 종업원들과 손님들의 마음을 틀어잡았다. 직관판앞에 항상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실, 봉사를 받으러 온 사람들이 교양자료에서 오래도록 눈길을 떼지 못하고있는 사실을 놓고 말할수 있다.

이렇게 곳곳이 교양장소로 꾸려지니 좋은 측면이 있었다.

우선 종업원들이 늘 5대교양직관판과 자료카드를 보면서 그 내용을 학습하게 되였다. 중요하게는 해설강사의 도움이 없이도 보다 많은 근로자들이 절세의 위인들의 위대성을 새기게 되였다.

초급당위원회는 종업원들속에서 위대성교양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짜고들었다.

그중의 하나가 혁명사적관과 혁명사적지에 대한 참관사업을 조직한 후 참관자들이 자기 단위 종업원들앞에서 느낀 소감을 발표하게 하는 모임을 조직하고있는것이다.

올해 1월 50명의 종업원들이 정천혁명사적지에 대한 참관사업을 했을 때에도 그랬다.

이렇게 하니 참관자들은 그 준비를 위해서도 강사의 해설을 틀림없이라 귀담아듣게 되였다. 또한 참관을 하지 않은 종업원들도 혁명사적내용을 잘 알게 되였다.

지난해 보천보전투승리기념일과 전승절을 맞으며 작업반별 혁명가요합창경연과 전시가요합창경연을 조직했을 때였다.

초급당위원회는 경연의 실효를 높이기 위해 사전조직사업을 면밀히 짜고들었다.

합창경연의 형식과 방법을 알려주고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한사람도 빠짐없이 참가하게 하였다. 혁명가요합창경연은 절세의 위인들의 위대성을 구가하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품질감독사업과 건설감독사업은 생산과 건설에서 질적지표에 따르는 과학기술적요구를 철저히 지키도록 감독통제를 강화하여 생산물과 건설물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중요하고 책임적인 사업입니다.》

최근 많은 단위들에서 액정텔레비죤생산이 늘어나고있다. 인민들의 높아가는 물질문화생활수준을 충족시키는데서 그 질보장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지난해 1월 대동강텔레비죤수상기공장에 액정텔레비죤들에 대한 국가적인 품질시험을 진행할수 있는 공정이 꾸려지기 시작했다.

공장일군들은 이것을 단순히 실무적인 사업으로가 아니라 인민들에게 우리것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주는 또 하나의 애국사업으로 여기고 혁명적으로 일판을 전개하였다.

시험성원선발로부터 현대적인 측정설비들을 마련하는 문제, 환경조건보장과 규격작성을 비롯하여 모든 측면에서 세계적수준에 맞는 공정을 꾸려야 하는것만을 제기되는것이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그러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자체의 힘과 기술에 의거하여 시험공정을 꾸리는 사업을 적극 밀고나갔다.

시험실환경조건은 측정결과의 믿음성을 과학기술적으로 담보하는 중요지표였다. 이들은 서로의 창조적지혜를 합치고 내부예비를 적극 동원하여 환경지표값들이 세계적수준에 도달한 성능시험실과 환경시험실을 새로 꾸리였다. 일군들은 제일 실력이 높고 경험이 풍부한 기술자들을 시험실성원들로 배치하였다.

현대적인 측정설비들과 규격들을 마련하는 사업들도 동시에 진행되였다.

현대적인 측정설비를 갖추어놓자고보니 걸린 문제가 많았다. 그러나 일군들은 측정설비들을 완비하는것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제품생산에서 선차적인 사업이라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이렇게 되여 시험실들에 10여종에 40여대에 달하는 현대적인 측정설비들이 갖추어지게 되였다.

공장의 기술집단은 국가망을 통하여 세계적인 규격들을 확보한데 이어 자체력량으로 방대한 자료들을 모두 번역하였다. 해당 기관들과의 련계밑에 액정텔레비죤의 특성에 대한 국가규격

양어의 과학화실현에 힘을 넣어

순천메기공장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메기생산을 늘이기 위하여서는 선진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사양관리를 부단히 개선하는것과 함께 사양공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끊임없이 높이고 그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

순천메기공장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력사적인 신년사와 현지말씀판 첫에 한결같이 떨쳐나 총공세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다.

일군들은 대중속에 들어가 메기양어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키도록 그들의 심장에 불을 지피는 화선식정치사업을 참신하게 벌리고있다. 또한 과학기술보급실운영을 실속있게 짜고들어 모든 종업원들이 기술기능수준을 한계단 높이고 실천활동에 활용하도록 하고있다.

일군들은 기술자들을 발동하여 메기양어의 과학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박력있게 내밀고있다. 기술자들은 메기양어에서 앞선 단위들의 기술자들과의 협동밑에 우량개체들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고있다. 그리하여 공장에서는 한달 남짓한 기간에 알깨우기를 자체로 한데 기초하여 수십만마리의 새끼메기를 과학기술적으로 기르고있다. 사양공들은 종자메기들에 대한 영양관리를 잘하여 새끼메기생산을 부단히 늘일수 있는 믿음직한 담보를 마련하였다.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새끼메기들이 늘어나는데 맞게 가열장의 설비관리, 기술관리에 힘을 기울이며 양어못들의 물온도를 정확히 보장하기 위해 애써 노력하고있다.

일군들은 새끼메기의 먹이를 임시기 단백먹이를 충분히 보장하는데 모를 박고있다. 종업원들은 자체의 힘으로 실지형이서식장전설을 최단기간에 물넣 불라는 열의안고 돌격전을 들이대고있으며 대용먹이생산에 박차를 가하여 전진을 이룩하고있다.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서로의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가며 메기의 생육기일을 종전보다 훨씬 줄이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있다.

공장에서는 국가과학원 해당 연구소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통합생산체계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완성하며 메기양어의 과학화를 한계단 끌어올리는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있다.

순천메기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공화국창건 일흔돐을 맞는 올해에 전투목표를 점령하여 승리의 봉창훈을 무를 애국의 마음안고 큰 보폭을 내짚고있다.

특파기자 오 철 훈

명언을 통한 애국주의교양 활발

2.8직동청년탄광 11갱분초급당위원회에서는 절세의 위인들의 명언을 통한 김정일애국주의교양을 잘하고있다.

분초급당위원회에서는 당세포들과 근로단체조직들에서 주, 월별로 명언학습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독보와 해설보임, 연구토론모임 등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활발히 벌려나가게 하고있다.

특히 당세포위원장, 선동원들이 명언에 담겨진 심오한 뜻을 깊이 학습한데 기초하여 탄부들에게 알기 쉽게 해설해주고있다.

얼마전 채탄3중대 막장에 내려간 분초급당위원장은 작업의 쉴참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명언 **《김정일애국주의는 김일성민족의 영원한 넋이고 숨결이며 부강조국건설의 원동력이다.》**에 담겨진 깊은 뜻을 해설해주면서 김정일애국주의를 실천에 구현하여 석탄증산성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하자고 열렬히 호소하였다. 이에 고무된 탄부들은 하루 석탄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로농통신원 김 청 일

광명성절과 불멸의 꽃 김정일화명명 30돐을 맞으며

조선우표 집중전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 76돐과 불멸의 꽃 김정일화명명 30돐을 맞으며 10일 조선우표박물관과 조선우표전시장에 조선우표들이 집중전시되였다.

전시장들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을 모신 우표를 반영한 사진문헌이 정중히 모셔져있다.

《인류의 태양》, 《태양의 미소》라는 제목으로 집중전시된 수백종의 우표들과 증권류들에는 항일대전의 나날에 백두광명성으로 높이 솟아오르시여 주체혁명의 장구한 로정을 자랑찬 승리와 영광으로 빛내이시며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완성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여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성스러운 혁명생애가 집대성되여있다.

《백두산장수별 삼천리를 비친다》, 《백두광명성 빛나는 조선의 미래 찬란하다》 등의 우표들에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탄생하신 력사의 날을 주체혁명위업의 창창한 미래가 펼쳐진 민족대통운의 날로 뜻깊게 경축하는 우리 인민의 열화같은 충정의 마음이 어려있다.

조선혁명을 책임진 주인이 되여 위대한 수령님의 위업을 대를 이어 받들어나갈 굳은 맹세를 안으시고 김일성종합대학에 혁명활동의 력사적자욱을 새기신 때로부터 비범한 사상리론활동과 정력적인 령도로 우리 당을 수령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고 주체혁명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신 어버이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게 하는 우표들도 전시되여있다.

력사에 류례없는 시련속에서 선군정치로 우리 조국을 영예롭게 수호하시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만년기틀을 마련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실록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20돐기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되신 15돐기념》, 《선군정치의 위대한 승리 만세!》, 《조선화 〈승리의 행군길〉》 등의 우표들에 반영되여있다.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우리 인민과 진보적인류의 다함없는 흠모의 정과 절세위인을 자주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받들어모셔갈 불타는 마음이 어려있는 불멸의 꽃 김정일화와 선물식물들을 형상한 우표들도 있다.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려명거리》, 《세상에 부럼없어라!》를 비롯한 우표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부강번영의 일대 전성기가 펼쳐지고 인민의 천만소원이 풀려나는 사회주의조국의 눈부신 현실을 잘 보여주고있다.

우표들은 위대한 장군님을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혁명의 새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커다란 고무적힘을 안겨주고있다.

【조선중앙통신】

불같은 헌신으로 울려가는 혁신의 동음

천내리세멘트공장 일군들과 로동계급

천내리세멘트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진군의 보폭을 힘차게 내짚고있다.

1월 세멘트생산계획 120%로 넘쳐 수행, 이것은 부강조국의 기둥을 억세게 받들어가려는 천내리세멘트공장 로동계급의 드팀없는 의지의 발현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지닌 숭고한 사명감을 깊이 자각하고 김정일애국주의를 높이 발휘하여 자기 초소, 자기 일터에서 맡겨진 혁명임무를 책임적으로 훌륭히 수행함으로써 부강조국건설에 이바지하여야 합니다.》

새해 첫아침 자기 가정에서 공장일군을 맞이한 공무직장 로동자 류명호동무는 뜨거운 마음을 금할수 없었다. 친혈육의 정으로 살림형편도 알아보며 올해를 혁신과 위훈으로 수놓아가자고 힘과 용기를 안겨주는 공장일군의 진심어린 고무는 정념한 로동자의 심금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이것은 비단 류명호동무의 집에서만 있은 일이 아니였다. 공장의 일군들은 그렇게 로동자들의 가정을 찾는것으로 새해 첫걸음을 떼였다.

그것은 그대로 혁신의 믿기틀이 되였고 《나를 따라 앞으로!》의 구령소리가 되였다.

강원도정신의 창조자들답게 공화국창건 일흔돐이 되는 올해에 또다시 새로운 승리를 이룩해갈 불타는 맹세를 심장에 간직하고 소성직장의 로동계급이 정초부터 크링카생산에서 집단적혁신을 일으켜가고있을 때 석회석분광산에서는 새해의 진군포성인양 우람찬 발파소리가 울려퍼졌고 선행공정을 맡은 직장들에서도 《원료와 연료는 넘려말라!》라는 목소리들이 기운차게 울려나왔다.

지난 1월초 소성직장에 뜻밖의 정황이 조성되였다. 소성로에서 나오는 크링카를 나르는 경사바가지승강기의 어느 한 바가지에서 나사가 떨어졌던것이다.

만일 그 상태로 조금만 지체하면 수백개의 바가지들로 련결되여있는 경사바가지승강기가 탈선될수 있었고 그렇게 되면 소성로를 세워야 했다.

바로 그러한 때 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지체없이 발판을 놓으며 나사가 떨어진 바가지가 있는 곳으로 돌아올랐다. 근 10m나 되는 허공을 뚫는다는것은 위험을 동반하는 일이였다. 그러나 그 시각 자기의 한몸무려 생각한 사람은 없었다.

소성로의 숨결을 지켜 자기들의 모든것을 다 바칠 각오로 충만된 로동계급이였기에 위험한 허공도 단숨에 돌아오른것이며 결사적인 투쟁으로 소성로의 정상가동을 보장하였던것이다.

소성직장의 전투원들만이 아니였다.

지난 1월 중순 천내군의 어느 한 산판에서는 낮에 이어 밤에도 언땅을 까내는 함마질소리와 곡괭이질소리가 하늘가로 끝없이 메아리쳐갔다. 그 메아리의 주인공들은 다름아닌 내화물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였다.

내화벽돌생산의 돌파구를 열고 세멘트증산의 믿음직한 담보를 마련하기 위해 그들은 공장으로부터 수십리나 떨어진 산판에 숙소를 이동전개하고 대소한의 추위속에서도 수백㎥의 박토처리전투를 벌리였던것이다.

박토처리전투를 마감짓던 날 눈앞에 드러난 내화물광석들을 흐뭇하게 바라보던 한 로동자가 문득 누구에게라없이 물었다.

《지금 공장에서는 소성로의 동음이 세차게 울려퍼지겠지요? 우리가 만든 내화벽돌로 소성로의 보수기일을 더 줄일수 있게 되였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뿌듯해집니다.》

살을 에이는 추위속에서도 10여일간의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려 끝끝내 내화벽돌생산의 돌파구를 열어제낀 그들, 어찌 열기를 내뿜으며 동음을 울리는 전투장만 세멘트생산의 전초선이라고 하랴.

언제나 세멘트증산으로 나라를 받들어간다는 보람과 긍지를 안고 사는 내화물직장의 로동계급이기에 그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년사를 받아안고 새해 첫 전투에서부터 굴함없는 공격정신으로 기세좋게 돌격해나갔다.

혁신의 불길은 연료보장을 맡은 분탄직장의 전투원들속에서도 세차게 타올랐다.

새해 첫날 직장장 구광철동무를 비롯한 직장일군들의 마음은 시종 뜨겁게 달아올랐다. 기중기, 콘베아 등 직장의 적지않은 기대들의 운전을 맡아안고 온 한해 휴식도 잊다싶이 하며 높은 책임성을 발휘해온 녀성로동자들을 명절기간만이라도 휴식시키기 위해 남자들로 빈틈없는 교대작업을 조직하고 집으로 떠밀었지만 아침부터 기대들마다에서는 녀성들이 변함없는 밝은 모습으로 운전을 해가고있었던것이다.

《우리도 공장의 전투원들이 아닙니까.》

이것은 꽃나이처녀시절부터 30년간 분탄직장에서 기중기운전공으로 일해온 리관순동무만이 아닌 직장녀성종업원들의 한결같은 심정이였다.

가정의 행복도 조국의 부강번영속에 있다는 숭고한 자각을 지닌 그들이기에 로력혁신자로, 직장의 꽃으로 존경과 사랑을 받는것이다.

분탄직장만이 아닌 보장부문의 동력직장과 공무직장, 보수직장을 비롯한 일터마다에서 불켜나는 혁신의 새 소식속에도 바로 누가 보건말건 묵묵히 헌신의 구슬땀을 바쳐가는 공장로동계급의 순결한 량심이 깃들어있다.

천내리세멘트공장에서 울려나오는 혁신의 동음.

그것은 당의 사회주의강국건설구상을 실천으로 받들어나가는 우리 로동계급의 심장의 박동소리였고 부강조국의 기둥을 받드는 초석이 되려는 억센 의지의 과시였다.

본사기자 신현규

불멸의 꽃 김정일화전시회준비사업 활발

광명성절을 맞으며 황해북도에서 불멸의 꽃 김정일화전시회준비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도김일성화김정일화위원회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뜻깊은 2월의 명절에 경축의 꽃바다를 펼쳐놓을 충정의 마음안고 꽃재배에 온갖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고있다.

불멸의 꽃재배와 보급사업을 잘해온 도대흥관리국, 도인민병원, 도검찰소, 도청년동맹위원회를 비롯한 도급기관들과 사리원시편의봉사관리소 등 많은 시급기관, 기업소들에서 전시회준비를 위해 재배봉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더욱 높이고 겨울철생육조건에 따르는 영양관리와 덧비료주기에 큰 힘을 넣고있다.

송림시김일성화김정일화온실의 종업원들은 위인칭송의 꽃과 더불어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길이 빛내여갈 불타는 일념안고 꽃의 생물학적특성에 따르는 알선 재배방법을 널리 받아들여 수백상의 꽃을 붉고 아름답게 피우고있다.

봉산, 은파, 신평군 등 여러 군들과 가정들에서도 태양의 꽃이 만발하게 하기 위해 꽃의 생육단계에 따르는 관리를 잘하고있다.

한편 도김정일화전시회장을 보다 이채롭게 꾸리며 전시대들을 특색있게 제작설치하기 위한 사업이 마감단계에서 적극 추진되고있다.

【조선중앙통신】

풍작의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박천군 신평협동농장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경제강국건설의 주타격전방인 농업전선에서 과학농사열풍을 일으키고 다수확운동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신문이나 잡지들에 높은 알곡소출을 낸 단위들이 소개되면 이곳 농장일군들은 만사를 제쳐놓고 주저없이 달려가군 한다. 농장에는 물론 그 어느 작업반에나 시험포전이 있는데 앞선 단위들에서 배워온 좋은 경험들은 곧 그 시험포전들을 통해 일반화된다. 그것은 작업반들사이의 과학농사경쟁과정이기도 하다.

누가 더 먼저 새 품종을 받아들이는가.

누가 더 앞선 영농기술을 받아들이는가.

농산제14작업반 반장을 만나보면 좋은 이야기를 들을수 있을것이라고 하면서 농장일군인 김정룡동무는 그에 대한 소개를 이런 단마디로 대신하였다.

《그 동무에게선 물 한방울도 안 샙니다.》

농장작으로 제일 뒤떨어졌던 작업반을 맡아 첫해에 온 농장의 예상을 뒤집어엎고 풍작을 이룩했다는 농산제14작업반 반장 한정남동무의 이야기는 소박하면서도 씨알이 박혀있었다.

《운전군 보석리에 가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대표로 참가하였던 작업반장동무가 있습니다. 우린 그 작업반의 경험을 많이 본받고있습니다.》

마음이 후더워졌다. 농장일군도 작업반장도 우리에게 먼저 하는 이야기는 자기들이 해놓은 어떤 일에 대한 자랑이 아니였다. 자기들보다 앞선 단위들에서 좋은 경험들을 배웠다는 그들의 이야기는 참으로 많은것을 생각하게 하였다.

원래 농산제14작업반의 포전은 지력이 높지 못한것으로 알려져있었다.

작업반원들과 인사를 나눈 첫날 한정남동무는 이렇게 호소했다고 한다.

《우리 작업반이라고 늘 뒤자리만 차지하겠습니까. 남보다 덜 자고 남보다 더 부지런히 달려서 어떻게 하나 올해 가을을 뗏뗏이 맞이합시다.》

그는 우선 분조장들과 함께 정보당 높은 알곡소출을 내는 농장들을 찾아가보면서 그들이 과학농사의 생활력을 직접 느끼게 하였다.

배워온 경험을 작업반농사에 받아들이기 위한 전투가 벌어졌다.

나쁜 땅에서부터 소출을 올려야 대중에게 과학농사의 우월성을 현실로 보여줄수 있다고 본 작업반장은 퇴비생산에 힘을 넣어 땅부터 기름지웠다. 이와 함께 그 우월성이 검증된 새 품종을 대담하게 받아들였다. 한편 이랑재배방법, 이른콩 모기르기 등 앞선 농법을 농장원들에게 배워주기 위한 사업에 품을 넣었다. 농업과학기술선전실에서, 작업반포전에서 격식없는 그의 강의는 때없이 진행되였다.

그해 봄철에 농장원들은 농산제14작업반원들이 자막대기를 가지고다니면서 모내기를 하는 류다른 광경을 목격하게 되였다.

아글타글 애쓴 보람이 있어 그해농사에서 작업반은 1등의 영예를 지니게 되였다. 톡톡톡 분배를 받아안으며 작업반원들은 한결같이 기쁨속에 말하였다.

과학농사가 제일이라고.

올해 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할것을 결기한 그들의 목표는 다수확작업반이 되는것이라고 한다. 비단 이 작업반만이 아니다. 이것은 전국의 앞선 농장들과 경쟁하며 소문없이 일 잘하는 신평협동농장이 머지않아 다수확농장이 되리라는 확신을 더욱 굳게 해주었다.

《주체농법》잡지를 언제나 기다리며 애독하는 농장일군들은 물론 농장원들이 약속한듯 신심에 넘쳐 하면 말이 참 인상깊다.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에 풍작의 비결이 있습니다!》

본사기자 조향선

북남태권도인들 합동시범출연 진행

【평양 2월 10일발 조선중앙통신】북남태권도인들의 합동시범출연이 10일 남조선 속초에서 진행되였다.

국제태권도련맹 총재, 국제올림픽위원회 주요성원들과 남측의 각계인사들, 태권도애호가들이 시범출연을 관람하였다.

지난 기간 여러 국제무대들에서 민족의 자랑인 태권도의 위용을 과시하여온 우리 태권도시범단 성원들은 이번 출연에서도 슬기롭고 용감한 조선민족의 정신육체적능력과 높은 경지에 오른 태권도기술의 발전모습을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정확성과 일치성, 속도와 힘, 균형, 률동 등 모든 세부들을 완벽하게 수행하며 민족의 억센 기상을 시위하는 시범단성원들에게 관중들은 열렬한 환호와 박수갈채를 보내였다.

남측태권도인들도 자기들이 련마한 태권도기술동작을 훤만히 수행하였다.

북과 남의 태권도인들이 함께 출연하여 민족정통무도의 독특하고 다양한 기술들을 훌륭히 펼쳐보일 때마다 관람자들은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지향하는 온 겨레의 기대와 관심속에 진행된 북남태권도인들의 합동시범출연은 우리 민족의 기개와 용맹을 내외에 힘있게 과시하는 계기로 되였다.

로병이 지녔던 애국의 넋을 안고

라선시 라진지구 안화동 82인민반 윤영숙동무와 그의 가정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유익한 일을 스스로 찾아하고있는 사람들속에는 라선시 라진지구 안화동 82인민반 윤영숙동무와 그의 가정도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애국의 마음은 조국과 인민을 위한 실천활동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윤영숙동무는 가정을 이룬 후 사회와 집단을 위한 좋은 일을 적극 찾아했고 인민군대원호사업에도 참가해왔다.

위대한 장군님을 뜻밖에 잃은 상실의 아픔을 힘과 용기로 바꾸며 온 나라가 일떠서던 그때에 가정에서는 중요건설장들에 성의있는 지원을 하였다.

그들부부가 애국의 발걸음을 더욱 힘차게 내디딘 또 다른 계기가 있었다.

제4차 전국로병대회가 열렸던 뜻해전 7월이였다.

그때 대회에 참석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우리의 전쟁로병들은 금은보화에도 비길수 없는 나라의 귀중한 보배들이고 민족의 장한 영웅들이라고, 진정한 애국자들이라고 값높이 내세워주시였다.

당보를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된 윤영숙동무와 그의 남편인 김창세동무는 격정을 금할수 없었다.

해방후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인민군지휘관으로 자라난 김창세동무의 아버지는 전쟁이 일어나자 남먼저 전선에 달려나가 원쑤를 용감하게 무찔렀다.

전투위훈을 세운 전쟁참가자이고 얼굴에 관통상을 입은 몸이였지만 그는 전후에도 혁명의 꽃을 계속 피우며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후대교육사업에 모든것을 다 바쳤다.

(한치한치의 땅을 피로써 지켜싸운 전화의 로병들이 지녔던 애국의 넋을 안고 그들앞에 부끄럼없이 떳떳하게 살자.)

윤영숙동무와 그의 가정은 불타는 애국충정을 안고 수백루리의 백도라지와 판리도구들 정성껏 마련하여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에 보낸것을 비롯하여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천세만세 높이 모시기 위한 사업에 지성을 다 바쳤다.

그들의 애국의 마음은 삼지연군 꾸리기와 려명거리건설장 그리고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를 비롯한 대고조전투장들에로 이어졌다.

라선시 선봉지구 백학동지역이 커다란 자연재해를 입었을 때에도 그들은 피해복구전투가 힘있게 벌어지는 건설장에 지원물자를 안고 달려가 건설자들에게 안겨주고 함께 땀도 흘리였다.

이 나날 윤영숙동무는 라진초급중학교에 다니는 외동딸 정향이의 가슴에 수령과 조국을 먼저 알고 나라를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애국의 마음을 심어주기 위해 자기들이 걷는 길에 함께 세우군 했다.

남달리 글작품창작에 취미가 있어하는 자식에게 한편의 동시를 써도 조국을 빛내일 뜨거운 마음을 안고 쓰도록 가정교육을 따라세우고있다.

오늘도 윤영숙동무와 그의 가정은 로병이 지녔던 애국의 넋을 안고 변함없는 헌신의 길을 걸고있다.

본사기자 리승철

고향땅이 자랑하는 처녀들

신양군산림경영소 양묘직장 청년작업반원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앞장에서 돌격로를 열어나가는것은 당의 전투적후비대이며 우리 사회의 가장 활력있는 부대인 청년들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몇해전 신양군산림경영소에 수십명의 처녀들이 찾아왔다. 나이도 성격도 서로 달랐지만 그들이 터놓는 목소리는 하나같았다.

《당의 뜻대로 고향땅을 푸른 숲 우거진 황금산으로 만드는데 이바지하고싶습니다.》

군당위원회에서는 처녀들의 결심을 귀중히 여기고 군산림경영소 양묘직장에 청년작업반을 조직해주었다.

청년작업반원들은 당의 믿음, 고향사람들의 기대를 심장깊이 간직하고 나무모를 키우는 사업에 자기들의 땀과 열정을 바쳐나갔다.

사람들은 인생에 두번다시 없을 처녀시절을 아름답게 수놓아가는 그들을 가리켜 신양땅의 준마처녀들이라고 정답게 불렀다.

새해의 첫아침, 력사적인 신년사를 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자애로운 영상을 우러르는 청년작업반원들의 눈굽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조국번영의 진군길을 힘차게 달려온 지난 한해를 돌이켜보면서 얼마나 위대한 인민과 함께 혁명을 하고있는가 하는 생각으로 가슴이 뜨거워진다고 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

과연 우리가 온 나라를 푸른 숲 설레이는 금수강산으로 전변시키시려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높으신 뜻을 천만분의 일이라도 받들어왔던가.

《동무들, 우리 올해에는 어떻게 하나 나무모들을 더 많이 생산하여 당에서 바라는대로 고향의 산들을 하루빨리 황금산으로 전변시킵시다.》

작업반장 리신옥동무의 불같은 호소에 작업반원모두가 열렬히 호응해나섰다.

이렇게 되여 청년작업반에서는 새해벽두부터 창성이깔나무모를 마련하기 위한 전투가 벌어지게 되였다.

쉬운 일이 아니였다. 례년에 보기 드문 강추위속에서 손발이 꽁꽁 얼어들 때도 있었고 수십리밖에서 거름을 실어오느라고 밤을 샌적도 있었다.

거름운반을 끝내고 나무모온실에서 작업을 시작하면 날이였다. 이른새벽 작업반원들의 침실을 돌아보면 리신옥동무는 몇몇 작업반원들의 잠자리가 비여있는것을 보게 되였다. 신통히도 작업반에 갓 들어온 나어린 처녀들이였다.

(첫새벽에 다들 어디 갔을가? 후시…)

아니나다를가 그들은 나무모온실에서 창성이깔나무씨앗을 뿌린 모판을 만들고있었다. 어제 밤늦게까지 작업을 하느라 몹시 피곤하겠는데 왜 좀더 쉬지 않고 나왔는가고 하는 작업반장의 물음에 그들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이가 어리다고 뒤자리에 서고싶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런 마음들이 합쳐져 청년작업반원들은 한주일은 실히 걸려야 한다던 창성이깔나무씨앗뿌리기전투를 3일동안에 해제끼는 성과를 이룩할수 있었다.

지난 1월 20일은 청년작업반이 조직된지 3년이 되는 날이였다. 새해 첫 전투를 빛나게 장식하고 뜻깊은 날을 맞이하는 처녀들을 많은 사람들이 열렬히 축하해주었다.

조국은 어떤 청년들을 제일로 사랑하는가.

자기가 나서자란 고향땅에 당의 뜻을 제일먼저 꽃피우기 위하여 땀과 열정을 깡그리 바쳐가는 신양땅의 준마처녀들이야말로 오늘 우리 당이 바라고 시대가 자랑하는 청년강국의 주인공들이 아니랴.

정영철

네팔련합민족사회주의당대표단 도착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까말 쁘라싸드 차울라가인 중앙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네팔련합민족사회주의당대표단이 10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류명선동지가 맞이하였다.

짐바브웨공화국 군사대표단 귀국

조선인민군창건 70돐에 즈음하여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던 엘싼 모요 공군사령관을 단장으로 하는 짐바브웨공화국 군사대표단이 10일 귀국하였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조선인민군 장령, 군관들이 전송하였다.

쓰르비아진보당출신 국회의원 귀국

미로슬라브 라잔스끼 쓰르비아진보당출신 국회의원이 10일 비행기로 귀국하였다.

【조선중앙통신】

훌륭한 청년

지난해 12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삼지연군의 어려 단위를 현지지도하신 소식이 전해졌을 때였다.

김일성종합대학 학생 석광진동무는 혁명의 성지인 삼지연군으로 달리는 마음을 진정할길 없었다. 그날 그는 부모에게 겨울방학기간에 삼지연군꾸리기에 애국의 땀을 바쳐갈 자기의 결심을 터놓았다.

《좋은 결심이다. 우린 네가 김일성종합대학 학생답게 혁명의 성지에 달려가 백두의 넋을 깊이 체득하기 바란다.》

아버지는 아들의 결심을 적극 지지해주었다. 그리하여 석광진동무는 삼지연군에서 겨울방학을 뜻깊게 보내게 되였다.

그는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을 더 밝고 정중히 모시기 위한 사업에 지성을 바치였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현지지도하신 단위들, 백두산밀영고향집과 혁명전적지들, 위대한 수령님들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단위들도 하나하나 돌아보았다.

매일 이른아침이면 삼지연군 읍에 모신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에 정중히 인사를 드리고 동상주변관리사업을 진행한 다음 216사단 백두산영웅청년려단 평안남도련대 돌격대원들과 함께 애국의 땀을 바치였다.

혁명의 성지에서 흘러간 20여일간은 그에게 있어서 한생 잊을수 없는 체험을 안겨준 소중한 날들이였다.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언제나 백두의 청춘들과 숨결을 같이하려는 석광진동무야말로 우리 당이 바라는 훌륭한 청년이 아니겠는가.

본사기자

인류의 심장속에 세세년년 만발하는 태양의 꽃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열화같은 충정과 세계 진보적인류의 다함없는 흠모심에 떠받들려 불멸의 꽃 김정일화는 세세년년 붉게 피여나 위인칭송의 꽃바다를 펼치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장군님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가야 합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의 모습을 언제나 심장속에 안고 살려는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주체86(1997)년에 첫 축전이 열린 때로부터 해마다 성대히 진행되여오고있는 김정일화축전은 김정일화명명 30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22번째 년륜을 아로새기게 된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지난 기간 김정일화축전에 근 40만상의 불멸의 꽃이 전시되였으며 축전참가단위수는 언 1 600여개, 축전장을 찾은 인민군군인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 해외동포들과 외국인들의 수는 850여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이것은 위대한 장군님을 주체의 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모시고 따르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들, 세계 진보적인류의 불타는 충정과 흠모심이 얼마나 뜨겁고 열렬한가를 웅변으로 보여주고있다.

불멸의 꽃 김정일화를 세세년년 아름답게 피워가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한결같은 지향과 불타는 념원에 의하여 김정일화축전규모는 해마다 커지고 있다.

김정일화명명 20돐이 되는 해에 진행된 제12차 김정일화축전에는 1차축전에 비하여 수십배나 되는 김정일화가 전시되여 황홀경을 펼치였다.

지난해에 진행된 제21차 김정일화축전에는 3만 500여상의 김정일화가 전시되였으며 참관자수도 35만여명에 달하였다.

지난 기간 우리 군대와 인민이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심을 안고 정성껏 피운 김정일화들은 해마다 불멸의 꽃축전장을 아름답게 장식하여왔다.

위인칭송의 꽃바다를 이룬 김정일화축전장을 찾은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은 희세의 천출명장이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으로 가슴을 불태웠다.

붉게 피여난 태양의 꽃들을 보며 참관자들은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어버이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되새기였고 장군님을 주체조선의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당의 현명한 령도따라 키어이 최후승리를 안아오고야 말 불타는 맹세를 다지였다.

황홀경을 이룬 축전장을 감동속에 돌아보는 외국의 벗들

축전장을 돌아본 어느 한 나라의 특명전권대사는 참으로 훌륭한 축전장이다, 김정일화축전장에 올 때마다 새로운 감흥을 받게 된다, 꽃송이와 색갈이 더 커지고 붉어졌다는 느낌이 강렬히 든다, 아마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그리는 조선인민의 경모의 감정을 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자기의 격동된 심정을 피력하였다.

지난 기간 많은 해외동포들과 외국의 벗들, 단체들이 김정일화축전에 참가하였으며 자신들의 뜨거운 지성이 담긴 태양의 꽃을 축전장에 보내여왔다. 이처럼 절세위인의 존함을 모신 불멸의 꽃 김정일화는 우리 인민들뿐만아니라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다함없는 흠모의 정에 받들려 언제나 봄을 앞당겨 활짝 피여나고있다.

불세출의 위인이신 위대한 장군님을 열렬히 흠모하고 따르는 인류의 뜨거운 마음과 지성에 의하여 지난 기간 여러 나라들에 30여만상의 김정일화가 보급되였으며 세계적으로 진행된 원예 및 화초박람회들과 다양한 전시회들에 150여차에 걸쳐 김정일화가 전시되였다.

또한 16차례의 세계원예 및 국제화초박람회들에서는 김정일화에 금상을 비롯한 최고상들이 수여되였다.

세계의 여러 나라 인민들과 진보적인사들은 전시회장들에 전시된 김정일화를 보면서 매혹의 감정을 금치 못해하였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맞으며 로씨야 나호드까에서 성대히 진행된 김정일화전시회장을 돌아본 나호드까시의회 의원은 해마다 많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김정일화전시회는 나호드까 주민들에게 김정일동지에 대한 조선인민의 높은 존경심과 조선특유의 문화를 엿볼수 있게 한다, 이번에 진행된 김정일화전시회는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친선적뉴대를 강화발전시켜나가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된다, 조선인민이 미국과 서방의 제재에 굴하지 말고 존경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받들어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반드시 승리하기 바란다고 언급하였다.

몽골김정일화전시회에 참가한 몽골김정일화협회 위원장은 날마다 눈에 띄게 발전하는 조선의 모습에서 조선로동당을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끝없이 빛내여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각하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오직 앞으로만 달려나가는 조선인민의 투쟁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였다고 하면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열화같은 흠모와 매혹의 감정을 격조높이 토로하였다.

년대와 세기를 이어 김정일화재배열기가 더욱 고조되고있는 속에 오늘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 불멸의 꽃이 널리 보급되고있다.

머지않아 성대하게 열리게 될 제22차 김정일화축전은 수령영생의 꽃바다, 위인칭송의 꽃바다를 아름답게 펼치며 경사스러운 2월의 명절을 환희롭게 경축하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리 수 정

만민의 다함없는 지성이 깃든 선물들

공예 《청동자기꽃병》

공예 《청동자기꽃병》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주체100(2011)년 6월 이란무장력 총참모부대표단이 삼가 올린 선물이다.

이란무장력 총참모부대표단 단장은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속에서도 자주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부강조국건설을 위한 조선인민과 군대의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매혹과 흠모의 감정을 담아 선물을 마련하였다고 한다.

청동자기꽃병은 이란의 어느 한 지역의 전통적인 공예품으로서 이란사람들은 이 꽃병을 민족의 자랑으로 여기고있으며 그것을 제일 귀한 손님에게 드리는것을 최대성의의 표시로 여긴다고 한다. 선물의 높이는 39㎝이며 직경은 18.5㎝이다.

단장은 자기 나라의 유명한 공예품을 두 나라 군대들사이의 친선관계에 길은 관심을 돌리고계시는 위대한 장군님께 선물로 올리게 된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하였다.

공예 《로씨야련방무력 동부군관구마크》와 금속싸모와르

공예 《로씨야련방무력 동부군관구마크》와 금속싸모와르는 주체100(2011)년 8월 로씨야련방무력 동부군관구 사령관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는 기회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삼가 올린 선물이다.

로씨야련방무력 동부군관구 사령관은 제국주의자들의 고립압살책동과 무분별한 침략전쟁책동속에서도 조선인민군을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키우시고 빛나는 예지와 강철의 담력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진두지휘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마음을 담아 선물을 마련하였다.

공예 《로씨야련방무력 동부군관구마크》에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있는 우리 나라와 로씨야사이의 친선관계를 변함없이 계승발전시켜나가고 조로 두 나라 군대들사이의 친선관계발전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려는 사령관과 동부군관구 군인들의 결의가 담겨져있다.

로씨야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고있는 금속싸모와르에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무디 건강하시기를 바라는 사령관의 지성이 깃들어있다.

싸모와르는 높이 36㎝, 아구리직경 13㎝, 너비 26.5㎝이며 마크의 크기는 가로 20.3㎝, 세로 25㎝, 두께 1.5㎝이다.

본사기자

효능높은 미량원소착염영양액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사에서 질소비료에만 매달리는 현상을 없애고 린, 카리, 규소비료와 여러가지 미량원소비료를 구색이 맞게 치도록 하여야 합니다.》

미량원소는 유기체가 정상적으로 자라는데 필수적이면서도 매우 적은 량이 요구되는 영양원소를 말한다. 농작물을 비롯한 생물체는 미량원소가 없거나 모자라면 그것으로 인한 병적현상을 일으키며 제대로 자라지 못한다.

오래전부터 농작물의 생육에 좋고 소출을 높일수 있는 여러가지 미량원소비료들이 연구되여 리용되여왔다.

정성수의촉산대학 강좌장인 박사 길광선동무와 해당 단위 종업원인 신경원동무를 비롯한 연구자들은 오랜 기간의 고심어린 연구끝에 우리의 지해와 우리의 원료로 세계적으로도 착체형성능력이 강한 물질로 알려진 히드록시에틸리덴디포스폰산을 합성하는 기술을 확립한데 기초하여 이 물질을 리용하여 철, 동, 아연, 망간, 코발트, 몰리브덴, 경희토류 등과의 착체형성을 실현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에 토대하여 여러가지 미량원소들이 동시에 물에 잘 풀리는 매우 안정한 착체를 형성함으로써 미량원소에 대한 농작물 등의 흡수률을 훨씬 높이게 하는 미량원소착염영양액을 만들었다.

이 영양액의 희석액으로 벼 종자처리를 하면 종자들의 싹트는률이 높아지는것은 물론 싹이 굳고루 튼다, 어느 한 농장에서 도입해본데 의하면 이 영양액으로 종자처리를 하였을 때 종전보다 훨씬 실리적이였다고 한다.

또한 모판단계에서 미량원소착염영양액의 희석액으로 여러번 일분무하여주면 아지가 더 빨리 나오고 뿌리도 더 많이 생기며 길어진다.

이렇게 자래운 모들은 초기영양이 좋고 병, 가물, 염, 추위 등 불리한 조건에 대한 견딜성이 높으며 생육기일도 7일정도 앞당긴다고 한다.

특히 간석지논과 복부지대 논들에서도 높고 안전한 소출을 거둘수 있게 한다.

미량원소착염영양액은 벼뿐만아니라 강냉이, 콩, 감자, 남새, 먹이풀, 화초, 나무 등의 재배에서도 뚜렷한 효과를 나타낸다. 한 정보의 벼농사에 필요한 미량원소착염영양액의 량은 매우 작다.

해당 농장들에서 미량원소착염영양액을 도입한 결과 논벼재배와 강냉이재배에서 모두 10~15%정도의 증수효과가 나타났다고 한다.

지대적특성과 지리적위치에 관계없이 알곡과 남새 등의 수확량을 확고히 높일수 있는 미량원소착염영양액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들이 각지의 여러 단위들에서 적극적으로 벌어지고있다.

본사기자 오 철 룡

정보화사회의 높은 단계-대자료시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정보산업에 대한 인식을 바로가지고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일하여야 합니다.》

정보산업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오늘날 세계는 정보화사회의 높은 단계인 대자료시대에 들어서고있다.

21세기에 들어와 인터네트가 광범히 리용되고 지능형손전화기나 관형콤퓨터를 리용한 이동인터네트와 각종 수감부들을 물품이나 설비, 건물 등에 설치하고 콤퓨터망을 통하여 감시 및 조종을 실현하는 사물인터네트가 구축되면서 각종 자료들이 폭발적으로 산생되고있다.

2015년 자료에 의하면 망에 접속되는 정보말단의 수는 2013년에 100억대에 달하였으며 1년동안에 생성되는 자료의 량은 2000년에 6EB(6×10^{6}TB)로부터 2013년에 4.4ZB(4.4×10^{9}TB)로 늘어나고 2020년에는 44ZB로 늘어날것이라고 한다.

이로부터 세계적으로 이미 대자료의 시대가 도래하였다고 평가되고있으며 사람들의 의사와 요구, 생활습관, 건강상태, 금융거래, 사물들의 거동 등 현실세계가 전면적으로 반영된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여 사회경제활동의 편판성과 급칙성을 발굴해내면 인간의 활동에 효과적으로 활용할수 있다는것이 공통된 견해로 되고있다.

현재 대자료에 대하여 정확히 규정된 정의는 없지만 보통 종전의 봉사기처리능력으로는 수집과 관리, 분석처리를 하기 어려울 정도의 방대한 자료로 통용되고있다. 대자료의 규모에 관하여서는 용량이 수십TB나 수백TB로부터 PB(1 000 TB)급까지 지어는 ZB급까지의 크기로 규정되고있다. 일부 경우에는 규모가 TB급이 아니라도 다양성과 실시간성의 특징을 가지면 대자료로 보는 견해도 있다.

이러한 방대한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여 필요한 결과를 얻어내고 그것을 사회경제활동에 활용하여 인간의 활동에 보다 편리하고 보다 큰 리익을 주는 새로운 방식을 창조하는것이 대자료기술이다.

대자료에 대한 기술개발은 2005년이후부터 대규모적으로 집합된 자료가 기업업무와 사람들의 생활을 크게 변화시킬수 있다는 견해가 제기되면서 시작되였으며 그후 구글계산기반이 구축되고 세계의 여러 인터네트회사들에서 대자료분석을 통한 업무의 개선으로 대자료의 가치가 확증되면서 보다 활발히 진행되게 되였다.

현재 많은 기업들에서는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방도의 하나로서 과거에 대한 분석, 현재의 동향분석과 함께 예측분석에 기초한 대자료활용전략을 내세우고있으며 기업활동에 필요한 사람, 물자, 자금과 함께 자료를 업무의 4대요소로 규정하고 자료중심형기업, 분석중심형기업으로 전환하는것이 하나의 추세로 되고있다.

본사기자

특색있는 민족음료-수정과

수정과는 생강을 우린 사탕물에 곶감, 잣, 계피가루같은것을 넣어 만든 특색있는 우리 민족의 전통음료이다.

수정과라는 이름은 과일이나 약용 및 식용식물의 뿌리와 열매, 씨 등을 꿀이나 사탕물에 졸여 만든 정과를 물에 담그어 만든데로부터 유래되였다고 한다.

원래 수정과는 복숭아, 딸기, 배 등을 가지고 만들어 리용하던것을 점차 곶감을 기본재료로 하면서부터 곶감수정과 또는 곶감정과라고 하였다.

수정과를 만드는 방법을 보면 우선 남비에 물을 붓고 깨끗이 손질하여 얇게 저며낸 생강과 잘게 부스러뜨린 계피를 따로따로 끓인다. 생강과 계피의 향기가 잘 우러나면 생강과 계피는 걷어내고 여기에 물이나 다른 여러가지 당재료를 넣고 다시 끓인다. 이것을 체에 밭아서 단지에 넣고 50~60℃로 식힌 다음 씨를 뺀 곶감을 넣고 푹 봉하여 7~8시간정도 놓아둔다.

낼 때에는 유리대접에 곶감을 5~6개정도 담고 수정과를 부은 다음 잣알을 띄운다.

수정과를 만들 때 생강과 계피를 함께 넣고 끓이면 서로의 향미를 감소시켜 자기의 고유한 맛을 살릴수 없으므로 따로 끓여서 식힌 다음 배합하여 리용한다.

여러가지 영양소들이 충분히 포함되여있는 수정과는 피를 맑게 하고 피로를 회복시켜주는데 좋은것으로 하여 건강음료로 널리 알려져있다.

우리 인민은 예로부터 설명절에 수정과를 즐겨마시였다.

오랜 력사를 가지고있으며 조선민족의 전통음료를 대표하는 수정과는 오늘도 우리 인민들의 식생활에 적극 리용되면서 민족적향취를 더해주고있다.

장철구평양상업종합대학 강좌장 리 후 남

비약의 열의 더해주는 과학기술보급의 거점

김책제철련합기업소 과학기술보급실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에서 과학기술보급실을 잘 꾸리고 운영을 정상화하여 근로자들이 누구나 현대과학기술을 배우도록 하며 현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과학기술의 힘으로 풀어나가는 사회적기풍을 확립하여야 합니다.》

얼마전 우리는 금속공업의 주체화실현을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김책제철련합기업소의 과학기술보급실을 찾았다.

원격강의실, 전자도서실, 과학기술발표실, 다매체열람실, 화상회의실 등이 훌륭히 꾸려져있는 이곳 과학기술보급실로는 매일 수많은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이 찾아와 필요한 과학기술지식을 습득하고있다.

눈길을 끄는 직관판들

과학기술보급실 1, 2층의 벽면과 계단벽면에는 다양한 직관판들이 있다.

1층벽에는 선철과 주철, 강철과 합금철, 환원철 등을 어떻게 갈라보는가 하는 상식자료가 씌여져있는 직관판이 있다.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벽면에는 기업소에서 생산되는 주요제품을 소개한 직관판이 있는데 이것을 보면 선철과 강철, 열간압연강판, 랭간압연강판, 아연도금판, 지붕재용색철판생산공정들에 대한 표상을 가질수 있고 해당 제품의 규격과 재질적특성도 알수 있다.

계단벽면에는 또한 각이한 금속들의 비중표에 대한 직관판이 있다. 때문에 계단을 오르내리면서도 사람들은 그 직관판을 보며 학습을 할수 있다.

그런가하면 2층벽면에는 기업소의 주요생산공정도와 과학기술발전연혁자료 등을 반영한 직관판이 있다.

과학기술보급실 실장 리경동무의 말에 의하면 누구나 이 직관판들을 보면서 기업소의 과학기술발전에서 한몫 단단히 하는 인재가 될 결심을 가다듬는다고 한다.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발표회

과학기술발표실에서는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과 발명제안들이 론의되고 발표되는 과정을 통하여 서로의 경험들이 교환되기도 한다.

지난해에 이곳에서는 전국적인 금속공업부문 과학기술발표회를 진행하였는데 김책제철련합기업소의 현장기술자들과 기능공들도 수십건의 기술혁신안들을 발표하였고 거기서 20여건이 우수하게 평가되였다고 한다.

최근년간에 진행된 전국적인 과학기술축전들에서 5월28일금속연구소와 동력1직장, 고속기계수리1직장, 제관1직장을 비롯하여 많은 단위의 현장일군들과 기술자, 기능공들이 훌륭한 과학기술성과자료가 우수한 평가를 받을수 있은것도 바로 과학기술발표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면서 기술혁신안들과 발명제안들을 합리적으로 완성한 결과이라고 한다.

결국 이곳에서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발표회는 현장일군들과 기술자, 기능공들의 창조적지혜를 발동시키고 더 많은 과학기술적성과들이 지체없이 현장에 도입되게 하는데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학술토론마당이며 경험교환의 계기이다.

은을 내는 전자도서실

기업소에서 산소분리기에 쓰이는 원심력상륜크의 흠막이소재를 새로 개발생산할 때였다.

기업소당조직에서는 흠막이소재를 우리 식으로 새로 개발할 목표를 내세우고 대담하게 그 과업을 연구소의 과학자들에게 주었다.

공업기술연구소 금속재료연구집단의 과학자들은 흠막이소재를 우리 식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보급실의 전자도서실에서 국가망을 통해 과학기술전당과 인민대학습당을 비롯한 여러 단위들의 기술자료들을 열람하고 연구분석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5원합금용해를 위한 최적합성용제를 개발하고 흠막이소재를 자체로 생산함으로써 산소열법용광로의 정상운영에 이바지할수 있었다.

김책제철련합기업소 공업기술연구소 소장 진광혁동무는 우리 식의 산소열법용광로의 정상운영을 위한 과학연구사업과정에 과학기술보급실의 자료열람력을 톡톡히 보았다고 하였다.

바로 그래서 이곳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 누구나가 과학기술보급실을 즐겨찾는다.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로 조국의 더 좋은 래일을 앞당기기 위해 배움의 열풍, 탐구의 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키며.

본사기자 백 성 근

학술용어전자사전

《거울 2.0》이 새로 나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언어학부문에서는 우리 말과 글의 우수성을 더욱 빛내이며 사회언어생활을 고상하고 문명하게 발전시켜나가는데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잘 풀어야 합니다.》

최근 국가국어사정위원회에서 학술용어전자사전 《거울 2.0》을 새로 개발하여 보급을 시작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편찬된 사전들가운데서 올림말개수가 가장 많고 처음으로 주기적이면서도 즉시적인 갱신기능을 갖춘 학술용어전자사전 《거울 2.0》은 전문과학기술분야와 일반사회생활분야의 용어들을 폭넓게 반영하고 자연과 사회현상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주는것으로 하여 사람들의 커다란 관심을 모으고있다.

사전은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70여만개의 학술용어들을 40여개의 학문부류로 나누어 매 용어마다 올림말과 함께 개념풀이와 상세해설 등을 주었으며 비규범어의 경우에는 해당한 규범어에로 안내해줌으로써 용어의 규범, 비규범관계를 명확히 알수 있게 되여있다.

일반적으로 사전은 개발후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달라진 용어들을 제때에 반영하지 못하는것으로 하여 리용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가치가 떨어지는것이 하나의 편향으로 되고있다.

전자사전에 갱신기능을 갖추는 기술은 개발하기 어려운 기술로 알려져있으며 오늘 이러한 갱신기능이 갖추어진 전자사전은 세계적으로도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한다.

학술용어전자사전 《거울 2.0》은 주기적이며 즉시적인 갱신기능이 갖추어져있는것으로 하여 새로 보충되는 용어와 달라진 규범관계를 제때에 신속히 반영할수 있다.

그리고 전체검색과 함께 규범어검색, 비규범어검색, 동의어검색, 분야별검색을 따로 할수 있다.

또한 붉은별조작체계와 윈도우즈조작체계, 지능형손전화기와 관형콤퓨터에서 모두 사용할수 있으므로 보급에서도 매우 편리한 우점을 가지고있다.

과학기술분야의 학술용어들을 전반적으로 조사장악하여 통일성을 보장함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과 학술용어집을 편찬할데 대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국가국어사정위원회의 일군들과 해당 부문의 교원, 연구사들은 당조직의 지도밑에 학술용어전자사전을 편찬하기 위한 줄기찬 투쟁을 벌리였다.

이들은 지난 시기 《학술용어집》(전11권)과 학술용어전자사전 《거울 1.0》을 개발완성한 성과에 토대하여 새로운 기술로 알려지고있으며 오늘 이러한 갱신기능이 갖추어진 전자사전을 개발하기 위한 전투를 힘있게 벌리였다.

갱신기능을 갖춘 전자사전을 개발해본 경험은 부족하였지만 리경철서기장과 리근용처장을 비롯한 국가국어사정위원회의 일군들은 사전을 리용할 대중의 관점에서 의견도 내놓으며 사전편찬사업의 앞장에 서서 결사관철의 기풍을 높이 발휘하였다.

또한 중앙통계국 통계정보기술교류사를 비롯한 여러 단위의 교원, 연구사들도 연구사업을 줄기차게 벌려 마침내 우리의 힘과 기술로 지난해에 학술용어전자사전 《거울 2.0》을 훌륭히 개발완성하는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사전은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아래 과학기술발전에서 이룩된 눈부신 성과들을 학술용어를 통하여 전면적으로 반영하고 학술용어사용의 전국가적통일성을 보장함으로써 나라의 과학기술발전과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추동하는데 적극 기여하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김 성 룡

미술적인 서체와 우리 생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산업미술에서는 글씨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현시기 상품의 가치를 높이고 직관성을 보장하는데서 미술적인 서체를 많이 쓰는것이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일반적으로 서체란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인정되고 조형예술적으로 완벽한 체모를 갖추어 씌놓은 표본화된 글자의 모양새를 말한다.

임의의 글씨가 서체(글씨체)로 되자면 조형예술적으로 완벽하고 독특한 개성이 있으며 대중속에 일반화할만 한 특징을 가져야 한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쓰이고있는 3대표준서체들인 고직체(천리마체), 청봉체, 평명체와 함께 정양체, 붉은기체, 옛 글씨체 등의 붓글씨체들 그리고 미술적인 서체, 인쇄체 등이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있다.

산업미술도안에서는 특히 미술적인 서체를 많이 쓰는것이 좋다.

미술적인 서체란 표현대상의 주제사상적내용에 맞게 미술적형상을 가장 뚜렷하게 나타낸 서체를 말한다. 다시말하여 대상의 주제사상적내용을 돋구기 위하여 미술적으로 조형화, 예술화한 서체를 말한다.

붓글씨체나 인쇄체들이 주로 서예분야나 출판물들의 본문에 리용되는 특성이 있다면 미술적인 서체는 주로 상표도안과 간판도안을 비롯한 여러가지 산업미술도안들에 쓰이는 특성이 있다.

각이한 그림적인 형상으로 글자획의 모양새와 장식을 특색있게 나타낸 미술적인 서체는 사회주의문화가 전면적으로 개화발전하고있는 오늘날 우리 인민의 문명한 생활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미술적인 서체는 날을 따라 높아지는 인민들의 정서적요구와 문명수준에 맞게 각종 상표도안과 상업봉사간판도안, 출판물 등에 광범히 리용되고있다.

우리 당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이 깃들어있는 콩우유차에 《콩우유》라고 통심에 맞게 씌여진 서체, 양말상표도안에 꽃잎을 형상하여 《철쭉》이라고 씌여진 서체, 미래과학자거리와 려명거리의 건물들에 붙여있는 일부 간판들에 씌여진 서체 등이 모두 미술적인 서체들이다.

산업미술부문의 모든 창작가들은 당의 의도대로 미술적인 서체들을 많이 활용함으로써 우리 인민이 보다 문명하고 유족한 생활을 누리도록 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평양출판인쇄종합대학 산업미술대학 학장 김 천 금

머리칼과 섭생

머리칼은 기계적자극으로부터 머리피부를 보호하면서 겨울에는 체온을 유지하고 여름에는 지나친 태양지사광선을 막아주는 등 사람의 건강에 이바지할뿐아니라 얼굴의 아름다움을 더해준다.

이러한 머리칼을 보호하자면 섭생을 잘 지켜야 한다.

언제나 하루일과를 합리적으로, 규칙적으로 짜고들어야 한다. 명랑하고 정서적인 상태를 항상 유지하는것과 함께 잠을 충분히 자며 영양섭취를 잘하여야 한다.

머리칼의 주성분인 케라틴단백은 10여종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여있으며 그중 류황을 함유한 아미노산인 시스틴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므로 머리칼이 잘 자라도록 하는데는 류황을 함유한 아미노산이 많이 들어있는 동물성단백질 특히 닭알, 닭고기, 닭뼈를 삶은 국 등이 좋다.

다시마, 미역과 같은 바다나물은 머리칼이 잘 자라게 하기때문에 정상적으로 섭취하면 머리칼성장에 효과적인 작용을 한다.

머리칼을 검게 하고 털주머니를 튼튼하게 하는 식품으로서 제일먼저 꼽을수 있는것은 단백질, 비타민, 광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콩과 정어리이며 남새가운데서는 시금치이다.

비타민B군은 머리칼의 성장을 돕는다. 비타민B군이 많이 들어있는것으로는 완두콩, 밀, 시금치, 과, 도마도 그리고 소젖, 소고기 등을 들수 있다.

머리칼이 빠지는것을 막기 위해서는 풍기름, 참기름, 참깨, 검은깨, 호두, 잣, 수산물, 콩고추 등을 적당히 먹는것이 좋다.

머리칼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해빛쪼임으로 머리피부의 혈관을 확장시켜 피가 잘 흐르도록 하는것도 필요하다.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 교원 최 주 성

상대를 모르는 21세기 돈 끼호떼의 가소로운 객기

최근 트럼프패거리들이 추진하고있는 그 무슨 《코피작전》이라는것이 미국과 국제사회에서 커다란 론난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얼마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것들이 미국내 조선반도전문가들의 비공개모임에서 트럼프가 진지하게 《코피작전》을 검토하고있으며 제한적대조선타격이 트럼프의 중간선거에 도움이 될수 있다고 발설한것이 공개되여 심각한 불의를 일으켰다. 이런 속에 내외언론들은 남조선주재 미국대사로 내정되였던 인물이 트럼프의 강경한 군사적방안을 반대하였다는 리유로 임명이 철회된것과 미핵전략자산들과 특수부대들이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로 집결되고있는 사실 등을 《코피작전》과 결부하여 분석하면서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가 끝난 다음 3월말과 4월초에 조선반도에서 군사적충돌이 벌어질수 있다고 하고있다.

무심히 스쳐지날 문제가 아니다. 미국은 조선반도에서의 핵전쟁준비를 본격적으로 다그치고있다. 트럼프패들이 운운하는 《코피작전》의 골자는 제한적인 선제공격 즉 우리의 핵, 미싸일시설들에 대한 정밀타격이다. 미군무는 저들의 본토에서 조선반도유사시를 가상한 병력과 장비들의 급파훈련과 락하산침투훈련을 벌려놓는가 하면 우리와의 무력충돌에 대비하여 전쟁때만 차용하는 전투복을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에 보급하기로 결정하는 등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있다.

미국이 《코피작전》이라는 우리에 대한 제한적인 선제공격각본까지 꾸려들고 설쳐대고있는것은 군사적힘으로 저들의 불순한 목적을 달성해보려는 범죄적기도의 발로로서 조미핵대결전에서의 참패로 막다른 궁지에 몰린 트럼프패거리들의 단말마적인 몸부림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은 우리의 핵억제력을 빼앗아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있다. 지난해에만도 트럼프패당은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미핵전략자산들을 련짇나게 들이미는 한편 《화염과 분노》니, 《완전과괴》와 《절멸》이니 하는따위의 폭언들을 마구 줴쳐대며 우리를 겨냥한 핵전쟁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려놓았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정정당당한 자위적인 핵억제력강화조치를 《위협과 도발》로 걸고들며 유엔《제재결의》를 한해동안에 무려 4차례나 조작해냈다.

하지만 미국의 무모한 핵공갈과 초강도경제제재, 외교적압박소동은 우리를 멈춰세운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각성시키고 분발하게 하였다. 우리 공화국은 나라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완전히 말살하려고 지랄발광하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침략기도를 철저히 제압하기 위하여 각종 핵운반수단들과 초강력열핵무기시험을 단행함으로써 전략적목표를 성과적으로, 성공적으로 달성하였다. 이제 와서 미국은 그 무엇으로써도 강력하고 믿음직한 전쟁억제력을 보유한 우리 국가의 전략적지위를 되돌릴수 없게 되였다.

언제 저들의 머리우에 불벼락이 떨어질지 몰라 고달픈 운명의 분분초초를 보내고있는 트럼프패당은 그로부터의 출로를 핵전쟁도발에서 찾고있다. 미국이 그 무슨 《핵폐기》를 위한 《강제적인 선택안》으로 내든것이 바로 《코피작전》이다. 우리에 대한 그 어떤 형태의 선제공격도 삼시에 전면전쟁으로 번져질수 있다는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한 사실이다.

트럼프패당이 위험천만하기 그지없는 《코피작전》에 대해 떠벌이며 그 실현을 위한 실제적인 움직임을 보이고있는것은 우리의 주동적인 조치와 노력에 의해 마련된 조선반도의 평화적분위기를 깨버리고 현정세흐름을 대결과 전쟁에로 돌려세우려는 고의적인 도발책동이다.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항시적으로 격화시키면서 아시아태평양지배전략을 실현하려는것이 미국의 변함없는 흉심이다. 이로부터 미국은 조선반도의 정세가 완화되는것을 달가와하지 않으면서 현 북남관계개선의 흐름에 제동을 걸고 정세를 긴장격화에로 몰아가려고 획책하고있다. 미국은 핵항공모함타격단들과 핵전략폭격기들, 특수전부력을 조선반도와 그 주변지역에 대대적으로 집결시키면서 남조선과의 합동군사연습을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가 끝난 후 즉각 재개할것이라고 떠들어대고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트럼프패당이 《코피작전》을 공공연히 줴쳐대고있는것은 우리에 대한 불의적인 선제공격으로 침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려는 미국의 히스테리적인 광증이 극도에 이르렀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그러나 미국의 위협공갈에 놀라 자기의 선택을 포기할 우리가 아니다. 트럼프패당이 《코피작전》따위로 그 무엇을 얻어보려는것은 삶은 닭알에서 병아리가 까나오기를 바라는것과 같은 허황한 망상이 아닐수 없다.

국제사회의 우환거리로, 21세기의 돈 끼호떼로 지탄받는 트럼프가 백악관 선임자들이 주무르다가 그 참혹한 후과가 두려워 집어던진 제한된 선제공격계획을 다시금 주어들고 준수없이 객기를 부리는것은 실로 가소롭기 그지없다. 오죽했으면 미국의 전, 현직 관료들과 전문가, 언론들이 《북조선이 보복하지 않을것이라고 생각하는것은 큰 도박이다.》, 《대조선군사적선택은 남조선은 물론 미국에 많은 희생을 초래할것》이라고 비난하고있겠는가.

지금 저들의 선제타격각본이 내외의 강력한 규탄을 불러일으키고있는데 당황망조한 트럼프패당은 《코피작전》은 언론이 만들어낸 《허구》라느니, 미국의 정책목표는 《북을 협상탁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 최대의 압박을 가하는것》이라느니 하고 떠들어대고있다. 하지만 그 무엇으로써도 저들의 흉악한 선제공격기도와 호전적정체를 가리울수 없다.

쓸데없는 객기와 만용이 초래할것은 시체와 죽음뿐이다. 세계적인 전략국가로 급부상한 우리 공화국의 위용과 위력을 아직도 분간 못하고 그 누구를 놀래워보려고 설쳐대는 미국의 꼴불이 참으로 불쌍하기 그지없다.

전쟁히훈증에 빠진 미국의 호전광들은 두눈을 비비고 마주선 상대가 누구인가 하는것을 똑바로 보아야 한다. 태평양작전지대안의 미군기지들은 물론 미국본토전역을 사정권안에 넣고있는 강력한 핵타격수단들을 갖춘 우리를 어째보려는자들은 종국적파멸을 각오해야 한다.

미국은 그 무슨 《코피작전》으로 우리를 건드리는 경우 상상도 못할 참혹한 후과가 차례진다는것을 명심하고 함부로 날뛰지 말아야 한다.

심 철 영

정세격화를 노린 상전과 주구의 복닥소동

요즘 조선반도에서의 정세완화분위기를 대하는 상전인 미국과 하수인인 일본의 행태가 매우 심술궂다. 얼토당토않게 대결의 복닥소동을 일으키는 추위틀린 꼴들을 보면 그것이 너무도 력력하다.

미국정계와 군부에서는 《조선과의 전쟁계획이 준비되여있다.》, 《오늘밤이라도 싸울 준비가 되여있다.》는따위의 도발적망발들이 그치지 않고있다.

미국은 핵항공모함타격단들과 소형항공모함이라고 하는 초대형상륙강습함들, 미싸일구축함들을 조선반도수역으로 급파하고 미본토와 하와이, 오끼나와 등지에서 100여개의 특수작전부대, 구분대들을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기간에 조선반도에 집중투입하려 하고있다.

미국은 조선을 저지시킬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다.》는 수작으로 저들의 대결망동에 신빙성을 부여하려 하고있다. 대규모적인 무력증강소동에 《데로방지》, 《안전유지》라는 면사포를 씌우고있다.

이에 일본이 상전과의 대조선압박공조를 운운하며 극성스레 맞장구를 쳐대는것은 참으로 쓸쓸전이다. 수상과 외상, 방위상 등이 동분서주하며 우리의 《위협》에 대해 떠들어대고 《조선이 시간벌이를 하고있다.》, 《미소의교에 헛눈팔지 말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최대의 압력을 가해야 한다.》는 악담질을 해대고있다.

이런 속에서 순환배치의 명목밑에 괌도에 기여든 《B-52》를 비롯한 미핵전략폭격기편대와 일본《자위대》의 《F-15》전투기편대들이 공중련합훈련에 광분하였다.

미국과 일본의 반공화국대결광기는 현 조선반도환경에 너무도 어울리지 않으며 국제사회의 지향과도 극적으로 대조되는 히스테리적만동이다.

지금 국제사회는 우리 국가의 주동적인 조치에 의해 조선반도정세가 평화와 안정의 방향으로 흐르는데 대하여 일치하게 환영하고있다.

유독 미국과 일본만이 안절부절 못하며 못되게 놀고있다. 여론이 의아해하지 않을수 없다.

미국과 일본이 조선을 저지시킬 시간을 운운하며 늘어놓는 《시간벌이》나발은 저들의 평화파괴행위를 가리우기 위한 황당무계한 수작이다.

미국과 일본은 완전히 건주정을 하고있다.

조선반도에로의 대규모적인 무력증강소동에 《데로방지》, 《안전유지》라는 감투를 씌우는것은 더욱 해괴한 짓거리이다.

여론들은 이번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가 미국제핵무기전시회, 전쟁올림픽인가고 비웃고있다.

그때 미국이나 일본에서 올림픽경기대회가 진행될 때 다른 나라들이 전쟁평파리를 두드리며 항공모함과 전략폭격기를 끌고가 경기를 했는가. 삼척동자도 코웃음칠노릇이다.

미국과 일본이 겉으로는 그 무슨 《지지》를 떠들어대지만 실제로는 조선반도긴장완화의 판을 깰 공공이만 하고있다는것이 여실히 드러나고있다. 미국과 일본이 카나다의 밴쿠버에서 벌린 반공화국모의판에서 우리를 겨냥한 《해상봉쇄》와 《최대의 압박전략》에 대하여 쑥덕거리고는 조선반도에로의 무력증강이 그와 련결된것임을 공개적으로 시사한것도 그것을 말해준다.

호전광들은 만일 외무상회의로 안되면 국방장관회의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불순한 객기도 서슴지 않았다.

미국이 반공화국핵전쟁연습을 미룬다고 하였지만 올림픽경기대회의 밑바닥에서는 전쟁기류가 소용돌이치고있다.

조선반도에로 무역무역 쓸어드는 방대한 핵전략자산들의 정음은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의 전주곡이다.

미국과 일본은 조선반도에서의 안정이 아니라 긴장을, 평화가 아니라 전쟁을 피하고있다.

남조선을 우리 공화국과 대륙침략의 교두보로 계속 타고앉아 아시아태평양지배전략을 실현하며 군수품장사로 치부하려는 미국에 있어서나 이런 상전을 등에 업고 재침야망을 이루어보려는 일본에 있어서 조선반도에서의 긴장완화분위기가 반가울수 없다.

우선 미국으로서는 지역대국들을 제압하기 위하여 일본과 남조선에로 조밀하게 확대하고있는 미싸일방위체계구축책동의 구실을 잃게 된다. 최근 미국방장관 마티스가 발표한 미국의 2018년도 국방전략에도 조선의 《미싸일위협》을 코에 걸고 다층미싸일방위체계구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것이 골자로 쪼아박혀있다.

일본도 다를바 없다. 지난때나 재침현훈증에 들떠있는 일본반동들은 올해를 헌법개악실행의 관건적인 해로 보고있다.

년초부터 조선의 《미싸일공격》허위보도까지 날리며 헌법개악의 명분쌓기에 급급하고있는데 조선반도정세는 그와는 정반대로 돌아가고있으니 야단이 아닐수 없다.

조선반도와 아시아태평양의 광활한 지역을 타격권안에 둔 숱한 미국제신형공격무기들을 사들이기로 약속하였는데 그 구실도 하늘로 날아나게 되였다.

우리의 결단으로 마련된 조선반도에서의 정세완화는 남강도깃을 하려는 미국과 일본을 탐꽃먼 개 지붕쳐다보는 꼴로 만들어버렸다.

미국과 일본이 오늘의 정세완화분위기를 깨려고 반공화국대결의 쌍피리를 지겹게 불어대는 리유가 여기에 있다.

미국과 일본은 설사 조선반도에서 핵문제가 아니라도 또 다른 문제거리로 정세긴장의 구실을 만들어낼것이라는 여론의 주장이 신통하다.

현실은 누가 조선반도와 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정의 수호자이며 누가 그 파괴자인가를 웅변으로 립증해주고있다.

미국과 일본이 대세를 거슬러 계속 반공화국대결을 부르짖어야 차례질것은 평화파괴의 원흉이라는 세계적인 지탄뿐이며 민족의 백년숙적, 철천지원쑤들에 대한 우리 인민의 보복의지만 천백배로 굳게 해줄뿐이다.

리 효 진

핵전쟁광신자들은 제가 지른 불에 타죽게 될것이다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대변인담화

최근 미국이 발표한 그 무슨 《2018핵태세검토보고서》는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엄중히 위협하고 새로운 랭전을 초래하는 위험천만한 핵전쟁기도를 담고있는것으로 하여 날이 갈수록 온 겨레와 국제사회의 한결같은 규탄과 배격을 받고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미국은 이번 보고서에서 우리가 중국, 로씨야, 이란과 함께 미국과 동맹국들에 《엄중한 위협》으로 되고있으므로 그에 대비하여 전략핵무기들의 현대화와 《저강도소형핵무기》개발에 착수하며 핵무기사용조건을 저들과 동맹국이 핵공격을 받았을 때만이 아니라 비핵무기의 공격을 받는 경우에도 대응한다는것을 쪼아박았다.

특히 미국은 이번에 우리의 자위적핵억제력을 세계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걸고들면서 핵무기현대화와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선제타격을 사실상 합법화하였다.

그러면서 자국과 우방국들에 대한 북조선의 핵공격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것이라느니, 북조선이 핵무기를 사용하고 생존할수 있는 경우는 없다느니, 북조선의 어떠한 공격도 《정권의 종말》로 이어지게 될것이라는 도발적망발을 줴쳐대고있다.

이것은 미국의 침략적인 핵위협에 대처한 우리의 정당한 핵보유를 오도하고 우리를 힘으로 압살해보려는 트럼프일당의 무분별한 핵전쟁광증이 극도에 이르고있다는것을 보여주는것으로서 우리에 대한 또 하나의 용납 못할 도발이 아닐수 없다.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 미국의 《핵태세검토보고서》를 대조선핵선제타격을 기정사실화한 범죄적인 전쟁문서로, 조선반도를 비롯한 세계를 대상으로 핵선제공격을 불사하여 핵전쟁을 일으키겠다는 깡패국가의 로골적인 선전포고로 락인하면서 이를 준렬히 단죄규탄한다.

미국은 이번에 보고서발표를 통해 조선반도핵문제의 주범, 세계적인 핵악마인 저들의 추악한 정체를 다시금 만천하에 여지없이 드러내놓았다.

미국이 현재 보유하고있는 대륙간탄도미싸일과 핵잠수함, 전략폭격기들을 더욱 현대화하며 효과적인 핵공격을 위해 《저강도소형핵무기》를 적극 개발하겠다고 공언한것은 핵무기를 세계제패전략실현의 기둥으로 삼으려는 흉악한 기도의 발로로서 세계를 핵무기축잠과 비핵화의 방향으로가 아니라 새로운 핵군비경쟁마당으로, 위험천만한 핵대결장으로 전락시키려는 무모한 망동으로 된다.

더우기 핵무기사용범위를 저들과 동맹국에 대한 재래식무기공격때에도 사용할수 있도록 확대한것은 늙다리미치광이 트럼프와 그 일당의 무모한 핵광태가 위험수위를 벗어나고있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력사상 처음으로 인류에게 핵참화를 들씌운것도 모자라 이행성을 무서운 핵재앙속에 몰아넣으려고 발광하는 미국이야말로 세계평화와 안정의 파괴자, 인류공동의 원쑤이다.

미국이 힘의 만능론에 들떠 핵무기를 마구 휘두르며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와 민족들을 짓누르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엄중히 유린강탈하면서도 그 피묻은 입으로 평화에 대해 부르짖고있는것은 인류에 대한 기만이고 우롱이다.

특히 우리 공화국을 핵으로 위협공갈하며 압살하려는 미국의 흉악한 범죄적책동은 극도에 이르고있다.

최근 미국은 우리의 주동적이며 적극적인 통보에적조치로 조선반도에 모처럼 마련된 긴장완화와 평화분위기를 차단하기 위해 핵항공모함 《칼빈손》호, 핵전략폭격기 《B-2》, 《B-52》를 비롯한 핵전략자산들을 남조선과 그 주변에 대대적으로 투입하면서 정세를 또다시 일촉즉발의 핵전쟁국면으로 끌어가고있다.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도 부족하여 그것을 마치 상용무기처럼 휘두르겠다는 날강도 미국이 우리의 《핵위협》과 《비핵화》를 걸고드는것이야말로 파렴치와 적반하장의 극치가 아닐수 없다.

지금 국제사회가 미국이 《핵태세검토보고서》를 발표하자 전세계를 다시 랭전으로 이끌고있다. 저강도핵무기는 실전에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 오히려 핵전쟁을 부르는 도화선이 될수 있다, 트럼프가 무모한 짓에 오르고있다고 하면서 준렬히 단죄규탄하고있는것은 너무도 응당하다.

현실은 우리가 미국의 가증되는 핵위협에 대처하여 병진로선의 기치를 높이 들고 국가핵무력완성의 력사적대업을 성취한것이 얼마나 현명한 선택이였는가를 웅변해주고있다.

미국의 핵위협공갈책동이 날로 횡포해질수록 우리 군대와 인민은 정의의 핵을 더욱 억세게 틀어쥐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를 굳건히 수호할 의지를 백배, 천배로 가다듬고있다.

우리는 미국의 끈질기고 악랄한 핵위협공갈과 핵전쟁도발책동에 맞서 자위의 핵억제력을 질량적으로 강화해나갈것이며 핵현훈증에 빠져 분별없이 날치는 악의 제국 미국에 대한 핵대응태세를 더욱 빈틈없이 갖추어나갈것이다.

미국은 시대착오적인 세계제패야망에 사로잡혀 독제의 핵몽둥이를 마구 휘두르다가는 비참한 파멸을 면치 못하게 될것이라는것을 똑바로 알고 함부로 날뛰지 말아야 한다.

온 겨레와 진보적인류는 조선반도와 행성우에 핵전쟁의 불구름을 미친듯이 몰아오는 날강도 미국의 횡포한 전횡을 짓부시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반미반전투쟁에 적극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주체107(2018)년 2월 10일
평 양

꾸바 미국의 침략적인 대외정책을 비난

꾸바외무성이 5일 성명을 발표하여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미국의 침략정책을 비난하였다.

성명은 최근 미국무장관이 라틴아메리카나라들을 돌아치고있는데 대해 지적하면서 그것은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지배권수립을 노린 몬로주의를 부활시키기 위한것이라고 폭로하였다.

미국무장관이 이번 행각에 앞서 어떻게 해서라도 베네수엘라의 합법적인 정부를 뒤집어엎으려는 야망을 로골적으로 드러냈다고 까밝히고 성명은 이것이야말로 세계곳곳에서 폭력과 전쟁, 인도주의재난, 불안정을 초래하고 수백만의 무고한 목숨을 앗아간 정권교체음모의 집중적 발로라고 규탄하였다.

성명은 불평등한 관계에서 자원을 수탈하기 위한 미국의 글욕적인 지배주의책동은 의연 계속되고있지만 라틴아메리카인민은 잠에서 깨여났으며 합법적인 정부를 전복시키기는 결코 쉽지 않을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국방력강화와 사회적진보를 위하여 ‖

무인기생산흐름선 가동

이란에서 5일 신형전술무인기를 생산하는 흐름선이 가동을 시작하였다.

이 나라 국방 및 무력병참성은 《카엠》정밀유도폭탄을 탑재한 《모하제르 6》으로 명명된 무인기를 공개하였다.

이 무인기는 정해진 목표를 정확히 식별하여 소멸하고 주야간 임의의 시간에 정보를 전송하며 짧은 활주로에서도 리착륙을 할수 있다고 한다.

대륙간탄도미싸일 시험발사

인디아가 얼마전 오디샤주앞바다에서 《아그니-5》대륙간탄도미싸일을 시험발사하였다.

사거리가 5 000㎞이상인 이 미싸일은 핵탄두를 탑재할수 있다고 한다.

교육발전노력

르완다에서 5일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깜빠니야가 개시되였다.

600여개의 학교를 대상으로 하여 4단계로 나뉘여 진행되는 깜빠니야기간에 학교관리운영과 교수교양을 개선하는데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료해하고 퇴치하며 직업학교들과 고등교육기관들에서 실천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들이 진행된다.

또한 전사회적으로 교육부문을 적극 지원하고 교육담당기관들의 책임과 역할을 높이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지게 된다.

테로반대투쟁

알제리군대가 올해에 들어와 반테로투쟁을 강화하여 성과를 거두었다.

1월 31일 이 나라 국방성은 전국적범위에서 여러차례의 테로소탕작전을 벌려 테로분자 13명을 처단하고 23명의 공모자를 체포하였으며 무기와 폭탄, 탄약을 압수하였다고 밝혔다.

경제장성전망

케냐아의 경제장성률이 올해에 5.3~5.5%에 달할것으로 전망되고있다. 특히 식량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에 따라 농업생산이 늘어남것으로 예견되고있다 한다. 5일 이 나라 보도수단이 밝혔다.

마약반대투쟁

필리핀에서 마약반대투쟁을 강화하고있다.

최근 이 나라 경찰이 밝힌데 의하면 2016년 7월초부터 올해 1월 중순까지 전국적범위에서 8만 1 919차례의 마약소탕작전을 벌려 2 577㎏의 마약을 압수하였으며 관련범죄자 약 3 990명을 처단하고 11만 9 360여명을 체포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미일과 적폐세력은 남북의 화해, 협력을 방해하지 말라

남조선각계가 항의규탄

보도들에 의하면 남조선 각계가 북남관계개선흐름을 파탄시키고 조선반도에서 대결과 전쟁위기를 격화시키려는 미국과 일본, 남조선보수세력을 강력히 규탄하고있다.

9일 남조선인터네트신문 《민플러스》는 《미일과 분단적폐세력은 평화올림픽 방해말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번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가 평화적인 올림픽으로 되는것은 남북과 해외동포들 그리고 전세계인류의 일치한 기대라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이를 미국과 일본, 남조선의 적폐세력만이 독을 품고 방해해나서려고있다고 사설은 비난하였다.

사설은 미국부대통령과 일본수상이 도꾜에서 만나 올림픽경기대회때 《강력한 대북메씨지를 내겠다.》고 한것은 세계적인 모임에 와서 행패를 부리겠다는 소리와 다를바 없다고 단죄하였다.

묵호항에서도 남조선의 보수패거리가 북의 예술단방문을 반대하는 란동을 벌려놓고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도저히 할수 없는 만행을 서슴없이 감행하였다고 사설은 비난하였다.

사설은 미국과 일본이 대결과 반목을 조장하는 언행을 즉시 중지하며 분렬적폐세력은 시대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국제적망신을 스스로 당하지 말라고 요구하였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남본부는 북남관계개선에 찬물을 끼얹는 미국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미국이 무력증강, 군사훈련, 제재 등으로 북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이어가는것은 우리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바라지 않고 나아가 이 땅에서 기어이 전쟁을 일으킬 속심을 드러낸것이라고 까밝혔다.

미국은 남북관계개선에 대한 훼방을 그만두어야 하며 더이상 전쟁의 불씨를 지필것이 아니라 올림픽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로 이어지도록 하는데 협력해야 한다고 성명은 강조하였다.

성명은 미국이 북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고집하며 남북의 화해, 협력을 방해한다면 대중적인 반미반전투쟁에 직면하게 될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미국은 우리 민족문제에서 손을 떼고 전략자산들을 철수하며 합동군사연습과 대조선적대시정책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성명은 요구하였다.

민중당 경상남도당위원장은 8일 경상남도청에서 남북관계개선을 로골적으로 방해하는 미국부대통령을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가지였다.

그는 미국부대통령이 《올림픽에서 북의 선전전을 방치하지 않을것》이라고 강경발언을 쏟아낸것은 우리 민족이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의 길로 나아가는것을 어떻게 하나 방해하려는것이라고 단죄하였다.

미국이 당장 남북관계개선에 대한 훼방을 중지해야 한다고 그는 언명하였다.

이날 적폐청산, 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는 부산에 있는 일본총령사관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일본집권자의 호전적망동을 규탄하였다.

발언자들은 아베가 일본군성노예범죄에 대해 진정한 사과도 없이 전쟁위협만 부추기며 올림픽을 구실로 남조선을 행각하는것을 반대한다고 말하였다.

아베가 남조선미국합동군사연습을 벌려야 한다고 줴친것은 남북관계개선을 가로막겠다는 속심에 따른것이라고 그들은 주장하였다.

그들은 아베가 갈 곳은 평창이 아니라 성노예소녀상과 강제징용로동자상이 서있는 곳이라고 언명하였다.

같은 날 남조선강원도의 주민들도 강릉에서 보수세력의 란동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가지였다.

발언자들은 북의 예술인들이 묵호항에 도착할 때 보수단체들이 환영나온 시민들에게 폭언, 폭행을 일삼았고 지어 살해위협까지 가하였다고 규탄하였다.

이것을 도저히 묵과할수 없어 투쟁에 나서게 되였다고 그들은 절규하였다.

그들은 국민들이 묵호항에서와 같은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하면서 《평화올림픽을 방해하는 세력은 이 땅을 당장 떠나라!》고 웨쳤다.

이전 통일부 장관 정세현은 라지오방송에 출연하여 남조선미국합동군사연습에 대해 왜 일본집권자가 나서서 제개해야 한다고 하는가고 하면서 남조선《대통령》이 일본에 단호한 자세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하였다.

일본은 《미국앞에 서서 뒤에 있는 큰형이 때려줄것이라고 생각하며 앞에서 소리지르는 졸개》에 불과하다고 그는 야유하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은 5일 트위터에 일본의 내정간섭행위를 성토하는 글을 실었다.

글은 미국부대통령이 남의 잔치집에 곡을 하러 오고 일본집권자는 남의 떡에 제집 굿을 할 심산이라고 조소하였다.

일본이 올림픽이 끝나는 즉시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을 하라는것은 내정간섭이라고 글은 비난하였다.

이날 같은 당의 다른 한 의원도 당회의에서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문제는 일본정부가 갑놓아라 배놓아라 할 일이 아니며 이는 평화에 재를 뿌리는 행위라고 못박았다.

【조선중앙통신】

부강한 이란을 건설하기 위한 노력

오늘은 이란이슬람교혁명승리기념일이다. 해마다 이날을 맞을 때면 이란에서는 집회를 비롯한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된다.

그렇다면 이란은 투쟁으로 쟁취한 이슬람교혁명승리의 의의에 대하여 어떻게 보고있는가.

2016년 8월 21일 이란이슬람교혁명지도자 때에드 알리 카메네이는 한 연설에서 1979년 나라에서 이슬람교혁명이 승리함으로써 서아시아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하려던 세계렬강들의 야망은 파탄을 면치 못하게 되였다고 밝혔다.

수세기에 걸쳐 렬강들의 각축전마당으로 되여온 이란은 1979년 2월 11일 전인민적봉기로 파흐라비전미독재정권을 뒤집어엎고 이슬람교혁명의 승리를 이룩하였다. 혁명승리후 이란은 미국의 경제적특권과 독점적지배를 끝장내고 미국인들을 추방하는 등 반제반미적인 조치들을 취하였다.

이란은 국방력강화에 계속 힘을 넣음으로써 중동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틀어쥐려는 미국의 야망을 분쇄해나가고있다.

얼마전 이란외무성 대변인은 국방력강화문제는 흥정거리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서방언론들이 미싸일계획과 관련하여 서방과 이란이 협상을 벌리고있다고 보도한데 대해 미싸일계획과 지역내의 정책들에 대한 자국의 립장은 일관하다고 하면서 국방력강화정책을 절대로 협상탁에 올려놓지 않을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지금 미국은 이란의 미싸일계획을 문제시하면서 어떻게 하나 파탄시키려 하고있다. 트럼프행정부가 이란핵합의문을 《잠적한 합의문》이라고 힐뜯으며 들어고치려 하고있는것도 그 문서에 이란의 미싸일계획문제를 쪼아박고 이 나라의 군사시설들을 마음대로 사찰하자는데 있다. 종당에는 이란의 군사비밀을 모두 내탐하고 군사력을 최대로 약화시켜 이라크처럼 만들려 하고있다.

이란정부가 국방력강화에 힘을 넣고있는것은 바로 이때문이다.

지난 1월말 이란해군은 오만해에서 자체로 개발한 새 세대 순항미싸일의 첫 시험발사를 진행하였다. 《카디르》로 명명된 이 미싸일의 사거리는 300㎞이며 해상목표들을 매우 정확하게 타격할수 있다. 바다속 깊은 곳에 있는 목표물까지도 소멸할수 있다고 한다.

같은 날 륙군은 이동식발사대를 리용하여 《나스르》단거리미싸일을 시험발사하였다.

이란은 경제발전에도 힘을 넣고있다. 이 나라 신문 《파이낸셜 트리뷴》이 전한데 의하면 이란에서 지난해 3월에 시작된 현 이란년도의 첫 6개월동안에 경제가 4.5% 장성하였다.

부강한 이란을 건설하고 이슬람교혁명승리를 공고히 해나가려는 이 나라의 노력은 좋은 결실을 맺을것이다.

본사기자 림 원

ㄱ-810241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등록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편집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